

인천인구 20년 뒤 320여만명 ‘정점 도달’

해밀학교 특성화교육 결실

3학년 16명 중 8명 대입 수시 합격

2대 도시 우뚝...2035년 경기>서울>경남>인천>부산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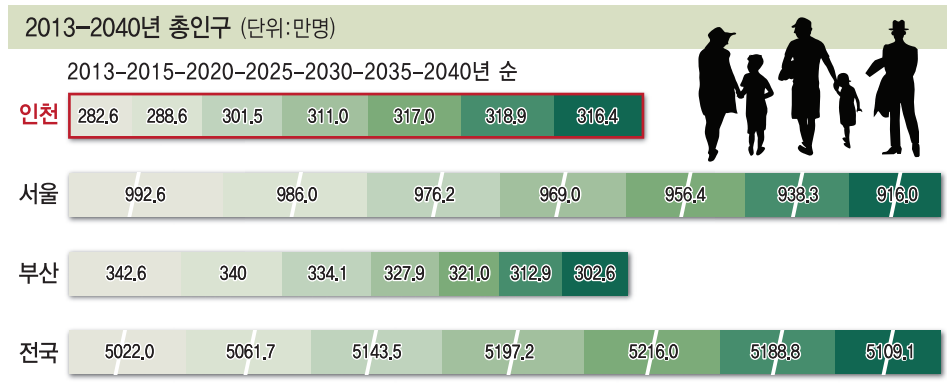
2013~2040년 인구 추이

市 중위연령 상승 2040년 51.1세

유소년↓ 고령↑ ‘늘어가는 도시’

전국 2030년 5216만명 최고치

수도권 2029년 2618만명 정점



인천이 20년 후 2대 도시로 우뚝선다. 인구는 320여만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부터 인천은 서울에 이어 전국 2대 도시이자,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 거대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반면, 인천과 경쟁 중인 부산은 물론, 서울과 대구의 인구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통계청은 인천이 2035년을 전후해 인구가 318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치를 내놨다.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을 통해 2013~2040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인구 추이를 분석한 통계청은 20년 후 전국 인구 규모가 경기, 서울, 경남, 인천, 부산 순일 것으로 예측했다.

인천의 인구 정점 시기는 2035년이다. 2013년 현재 282만6000명에서 2015년 288만6000명, 2020년 301만5000명으로 증가한다. 2025년은 311만명, 2030년은 317만명에서 2040년 316만4000명으로 인구가 줄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작년 1.45%의 인구 증가로 광역시 가운데 인구 증가율이 최고였고, 2015년 0.97%, 2020년 0.77%로 점차 인구 성장률이 감소하게 된다.

통계청은 전국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으로 최고치를 보이다, 점차 감소해 2040년에는 5109만명이 될 것으로 봤다. 수도권 인구는 2029년 2618만명으로 정점을 찍게 된다.

하지만, 인천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인천의 중위연령은 작년 38.6세에서 2015

년 39.7세, 2020년 42.1세, 2025년 44.7세, 2030년 47.2세, 2035년 49.3세로 세월이 흐를수록 중위연령이 높아진다.

2040년 중위연령은 무려 51.1세가 된다. 작년 인천의 중위연령은 전국과 비교해 다섯 번째로 적었다. 가장 젊은 곳은 광주로 37.0세였고, 가장 높은 곳은 전남 45.2세였다. 중위연령은 총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을 의미한다.

반면, 인천 유소년 인구(0~14세)는 작년 42만7000명에서 2040년 37만명까지 줄게 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또한, 작년 212만5000명에서 2040년 184만7000명으로 감소한다.

이와 반대로 인천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작년 27만4000명에서 2040년 94만7000명으로 급증한다.

이를 기초한 인천 총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는 2013년 33에서 2040년 71.3으로,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역시, 작년 12.9에서 51.3으로 두 배 이상 된다. 유소년 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유소년)는 다행히 2013년과 2040년이 비슷한 20.0이다.

이 밖에 인천 학력인구는 초등학교 학력인구(6~11세)가 2013년 대비 2040년에 7000명이, 중학교 학력인구(12~14세) 2만1000명, 고등학교 학력인구(15~17세) 2만9000명 감소로 분석됐다.

여기에 인천의 성비(여자 100명 당 남자의 수)는 2013년 101.6에서 2020년 100.4, 2030년 99, 2040년 97.7로 여성인구가 늘어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알코올 중독과 자해 시도 등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대안교육기관인 ‘인천 해밀학교’가 3학년 전체 학생 가운데 절반이 2015학년도 대학 수시에 합격하는 결실을 맺었다. 학생들의 적성을 이끌어 내 진학으로 연결하고, 맞춤형 교육을 적용한 성과다.

인천 해밀학교는 16명의 3학년 가운데 8명이 이번 대학 수시에 합격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도 4명은 지난 달 2015학년도 수능능력시험을 치르고, 정시 모집에 응시할 계획이다. 2명은 취업에 성공하는 등 미래 준비에 미리 나섰다.

수시 합격생 가운데에는 국립대 합격자도 있다. 물리치료학과와 레저스포츠과, 호텔경영학과, 유아교육학과 등 전공도 다양하다.

3학년 담임인 최용은 교사는 “특별한 과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그에 맞는 교육을 했다”며 “학교와 사회가 외면한 학생들도 엄연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엔 입증한 셈”이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ih@incheonilbo.com

내년 살림 7조7648억7175만원

시의회 예결특위 市 예산안 가결

인천시의 내년 살림 규모가 7조7648억7175만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시내년 예산안을 이같이 가결했다. 일반회계는 4조9777억1742만원, 특별회계는 2조7871억5432만원 규모다.

예결위는 이번 예산 심사의 쟁점 중 하나였던 문화복지위원회의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운영세입 50억원 증액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뺨뼉기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날 이한구 문복위원장은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세입 증액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견을 피력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 밖에도 세출 예산 가운데 논란이 됐던 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140억원 삭감에서 100억원으로 소폭 조정됐고, 문복위가 증액했던 인천유나이티드FC 지원 예산 40억원은 소폭 삭감돼 33억원으로 확정됐다.

/박진영 기자 erhst@incheonilbo.com

토·일요일자 신문 쉽다



51번째 아너소사이어티 ‘명예의 전당’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들이 ‘51번째 아너소사이어티 인증패’를 명예의전당에 전시하고 있다. 아너소사이어티 명예의 전당은 1억원 이상 고액 기부금을 전달해 한국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클럽이며 인증을 받은 회원들의 손모양과 이름을 인증패로 만들어 전시된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한·중 카페리 시장 ‘조선’ 바람

<造船>

중고선박 활용 대신 건조

화동해운·단동항운 계약

위동항운·진천항운 검토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한·중 카페리 업계에 배를 새로 건조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고 선박을 활용해 온 한·중 카페리 시장에서 새 배를 만날 수 있게 됐다.

11일 한·중 카페리 업계에 따르면 화동해운과 단동국제항운은 지난 10월 중국 현지 조선소와 카페리선 건조 계약 체결을 마무리했다.

인천과 중국 석도 항로를 운영 중인 화동해운이 새롭게 건조 중인 여객선은 3만 4000t급으로, 여객정원은 1500명 규모다. 오는 2016년 6월 인수·인계를 받는다.

인천과 단동 항로를 오가는 단동항운도 1만6000t급에, 여객정원 1500여명 규모인 새 카페리선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카페

리 역시 2016년 8월 건조가 완료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중 카페리 여객선은 유럽 지역을 운항하던 중고 여객선을 구입해 개조한 뒤 투입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한 척에 약 600억~700억원에 달하는 카페리를 새로 건조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영향이 크다.

세월호 연령이 화두에 오르면서 인천 한·중 카페리 여객선 평균 선령 역시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화동해운이 운영 중인 1만9000t급 ‘화동필 VI’호는 1988년 6월에 건조된데 이어 단동항운의 ‘오리엔탈필 VI’호 역시 1995년 6월 건조됐다. 올해로 선령이 각각 26년, 19년이다.

특히, 지난 9월 열린 한·중 해운회담에서 강화된 선박 노후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방침도 관련 업계가 신 건조로 방향을 트는데 역할을 했다.

현재 선령 20년 이상 여객선의 경우,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매년 정기검사를 받

이고 있는데, 25년 이상 여객선은 6개월마다 특별검사를 시행하기로 두 나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중 뱃길을 가장 먼저 연 위동항운 역시 현대미포조선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소들과 3만t급 새 여객선 건조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인천-웨이하이를 운항 중인 ‘뉴골드브릿지 II’가 1990년에 건조돼 교체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항 중단 1년 5개월 만인 지난 9월 인천-진천 항로 운영을 개시한 진천항운 역시 새 선박 건조를 놓고 내부 검토 중이다. 운항 중인 2만6000t급 ‘천인호’가 1990년에 건조된 만큼, 운영이 안정기에 접어드는 내년 3월 내에 입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중 카페리업계 관계자는 “국제여객선 신 건조는 현재 국내 분위기가 강화되는 규제를 고려할 때 필연적인 선택”이라며 “다만,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 카페리 업체는 자금 확보에 애를 먹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latto@incheonilbo.com

누가
이
것
을
좋
다

USW 수원대학교
THE UNIVERSITY OF SUWON

2015학년도 수원대학교 정시 신입생모집 (나·다군) / 원서접수: 2014.12.19(금)~24(수)
입학문의·입학관리처 031-229-8420~2, 031-220-2114 / www.suwon.ac.kr

인발연 “내년 경제성장률 2.8% 예상”

취업자 150만명 ‘역대 최저 상승’ 추정... “고용·실업률 등 올해 수준일 듯”

인천의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이 2.8%로 예측됐다. 올해의 추정치인 2.7%에 근접한 수치다.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소비자물가 등 경제 주요 지표들도 대부분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 산하 연구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은 11일 조승현 연구위원이 작성한 ‘2014년 인천경제 평가 및 2015년 인천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인발연은 그동안 인천의 경제성장률이 전국 경기상향과 연동해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분석하며, 국내나 세계의 경기변동과 비슷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

했다. 인천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0년 10.7%, 2011년 1.6%, 2012년 0.7%, 2013년 2.5%를 기록하고 있다.

취업자수는 올해 147만1000명보다 소폭 증가한 150만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취업자수가 0.64% 증가한 지난 2008년 이래 상승비율이 가장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률은 올해 61.2%에서 내년 61.3%로 거의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인발연은 지난 2009년 이후 타 지역에 비해 고용률의 우위를 지속했으나, 점차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업률은 올해 4.75%에서 내년 4.69%

로 소폭 줄겠지만, 여전히 전국 최고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3년 지역별 실업률은 서울 4%, 부산 3.8%, 대구 3.3% 대전 3.1% 등이다. 이 밖에도 소비자가 물가는 올해 1.44%에서 1.6%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발연은 올해 지역 경제에 대해 “일자리 실적이 부진하고 물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라고 분석했다. 일자리 지표에서는 여전히 전국 선두권을 유지하곤 있지만 상승세가 낮아보이니 따라잡힐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 규모의 증가세는

0.09%에 불과해 전국 평균 2.11%보다 떨어졌고, 서울 -1.5%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고령층 취업자의 상승률은 무려 7.63%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젊은 취업자가 줄고, 일하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모양새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2.92% 상승해 대구 11.4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세가격지수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는 무려 10.95%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9%p 높았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시-도시공, 여행업협회 직원 100여명 ‘메가팸투어’

“일본관광객 유치·방한시장 활성화”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9일에 이어 11일 일본여행업협회(JATA) 소속 여행사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메가팸투어를 벌였다.

이번 메가팸투어는 2015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대비해 방한 일본관광객 유치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일본 내 협한 분위기를 오랜 기간 위축되어 온 방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여행업협회 간부들과 소속 여행사 담당자들로 구성된 방문단은 강화 초

진지를 시작으로 전등사, 평화전망대, 고인돌, 인삼센터 등을 돌았고, 강화도 특산물인 갯벌장어 정식을 맛봤다.

시 관계자는 “일본 전역에서 초청된 여행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번 팸투어가 침체된 일본 방한시장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강화지역은 물론 차이나타운, 비발 공원, 별그대 코스 등 도심권 관광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yj96@incheonilbo.com

AG조직위 내년 10월 ‘해산’

출범 후 8년만에 청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내년 10월 청산된다. 지난 2007년 인천아시아게임 유치 후 조직위가 출범된 후 8년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조직위는 내년 3월까지 법인 해산 절차를 밟고 10월에는 청산 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2007년 10월 출범한 조직위는 이달 말까지 각종 사업비 정산, 평가보

고서 발간, 기록물 이관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내년 1-3월에는 예산 회계 결산, 물자·재산 처분 뒤 공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3월 중에는 조직위 집행위원회·위원총회를 거쳐 해산을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산 신고를 하게 된다.

조직위는 이어 10월까지 채권 공고·변제, 잔여재산 인도 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법원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하게 된다.

/이주영 기자 leeyj96@incheonilbo.com

지하철 유희공간 활용수익 ‘660억’ 전망

교통공, 부평·작전·계산·계양역 상가 임대사업 추진

인천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유희공간을 활용한 임대 사업으로 최대 15년간 660억원대 수익을 낼 전망이다.

교통공사는 11일 분사 영상회의실에서 민간사업자와 부평역·작전역·계산역·계양역 등 4개 역사 유희공간 개발 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민간사업자는 80억원을 들여 이들 역사 유희공간에 신규 상가를 조성한 뒤 임대 사업을 벌이게 된다.

사업자는 5년 단위로 최대 15년까지 상가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유지하면서 교통공사에 임대료 661억원을 지불하게

된다. 사업자가 추가로 조성한 상가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교통공사에 귀속된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으로 재정난이 심해지는 가운데 비용부담 없이 임대 수익을 창출하게 됐다”며 “폐쇄한 역사 환경 조성고 상권 활성화까지 고려하면 일석 삼조의 효과를 보는 셈”이라고 했다.

교통공사는 재정상태 개선을 위해 지하철 역사에 민간 자본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국제아동교육포럼 17-18일 송도서

인천시는 오는 17-18일 2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2014 인천국제아동교육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내년 인천에서 열릴 ‘국제아동교육도시전’의 사전 행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포럼 주제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다’로, 교육 콘텐츠와 기술의 미래에 대해 논의를 벌인다.

첫날에는 ‘사회발전을 위한 독서의 중요성’을 통해 세계 각국의 독서장려운동 현황과 동·서양의 콘텐츠와 기술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둘째날에는 워크숍과 발제를 통해 혁신적인 교육에 대한 사고를 심화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300명의 발제자와 아시아와 세계 각국의 교육전문가, 언론인, 교육 콘텐츠 출판사 등의 대표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주영 기자 leeyj96@incheonilbo.com



인천문화 발전·활성화 기여...시장상 수상

촬영을 하고 있다. 부문별 수상자는 문학 김사연, 미술 김봉섭(사진)·정근하(미술), 공연예술 최중욱(연극)·박문전(음악), 체육 노순영, 언론 김인완이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2회 인천광역시 문화상 시상식’에서 문화와 미술 등 5개 분야 7명에게 상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문별 수상자는 문학 김사연, 미술 김봉섭(사진)·정근하(미술), 공연예술 최중욱(연극)·박문전(음악), 체육 노순영, 언론 김인완이다. /사진제공=인천시

시민 소득·생활만족도 수도권 중 ‘가장 낮아’

통계청, 1인당 총생산액 2227만원 ‘최하’...도 2413만9000원

수도권 지역 가운데 인천 시민들의 소득과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통계청이 11일 발표한 ‘수도권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2년 인천 1인당 총생산액은 2227만원으로, 서울(3142만4000원), 경기(2413만9000원) 등과 비교해 가장 적었다. 전국 1인당 총생산액 2686만9000원을 훨씬 밑도는 수치다.

소득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민 가운데 12.5%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

만, 이보다 낮았다.

2012년 소득만족도는 경기 13.3%, 서울 12.2% 등이지만, 인천은 10.5%에 그치며 수도권 최하위로 기록됐다. 반면, 소득 불만족은 인천이 52.5%, 서울 50.4%, 경기 49.7%로 집계됐다.

소득에 대한 불만은 소비생활 만족도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소비생활만족도는 인천이 11.7%로 서울 14.0%, 경기 14.2% 보다 낮았고, 불만족은 인천이 43.2%로 서울 39.1%, 경기 40.9%보다 높았다.

환경제감도에서도 인천이 꼴찌를 기록했다. 환경불만족은 대기 28.5%, 수질 17.2%, 토양 23.3%, 녹지환경 25.5% 등으로 분야별로 가장 높았고, 소음·진동 불만족의 경우, 36.2%로 37.6%로 집계된 서울보다는 다소 좋았다.

생활 전반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시민도 인천이 가장 많았다. 2012년 ‘스트레스는 느낀다’는 인천 시민은 75.2%로, 서울 72.3%, 경기 71.2% 보다 높았다.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는 비중은 24.8%로 수도권 가운데 가장 적었다.

하지만, 지역 주택보급률은 인천이 가

장 높았다. 2013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서울 97.5%, 경기 98.7%로 조사됐지만, 인천은 102.0%로 수도권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100%를 돌파했다.

주택매매가격지수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양새다. 2003년 매매가격지수는 인천이 가장 낮았지만,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지수 100을 훌쩍 넘어 수도권에서 강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주춤, 2013년에는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인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013년 18.6%로 경기 19.7% 다음으로 높았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www.incheonilbo.com

400-034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226(항동4가 18-1) 442-8344 수전식 판단구 경수대로 507번길 5(장수동 2층 경기본사)

회장 김점성 발행·편집인 박길상 주필 조우성 편집국장 백종환

대표전화 인천 032-4520-114 경기 031-232-2288 광고접수 032-4520-151 구독신청 032-4520-127

1988년 4월 25일 가-49호 등록 / 인천일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0,000원 / 한부 500원

인천일보 가사는 NAVER.com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1116-중42302호

발기부전 약물치료와 보형물삽입수술

원터치 자동 주입기

발기부전의약물치료 - 고개숙인 남성들에 희소식

- ◆ 간편한 휴대성 !
- ◆ 발기 지속 효과 !
- ◆ 만족스런 부부관계 !

원터치 자동주입기는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1.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성기능 장애
2. 노인성 발기장애 및 당뇨병의 신체이상에 의한 발기력 감퇴
3. 약물성, 가려운 혈관성, 가려운 신경손상 신경질환에 의한 발기장애
4. 원인 불명의 발기장애

※ 원터치 자동주입기를 이용한 약물주입 요법은 성유화 및 발기 지속의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의 진료후 사용하것이 좋다.

보형물 삽입 수술

남성의 성기능 장애 중 심각한 것이 중증 발기부전이다. 중증 발기부전은 먹는 약이나 주사로도 발기가 되지 않는 경우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이다.



수술받는 대상

- 약물로 발기부전 치료가 안되는 경우
- 다른 치료에는 반응하지 않는 동맥성, 정맥성 발기부전으로 진단된 경우
- 외상이나 수술, 암 치료후 발기부전이 온 경우 시술후 기계 고장 및 염증이나 알러지 반응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의사의 상담과 수술이 필수!

인천코넬비뇨기과 의원

☎032-423-9116

흥륜사 정토원

도심 속 천혜의 자연환경과
고품격 봉안시설을 자랑하는
흥륜사 정토원 봉안당!!

- ◆ 신뢰할 수 있는 운영과 관리
- ◆ 흥륜사와 영구히 존재
- ◆ 다양한 부대시설과 편의시설
- ◆ 가까운 곳, 편리한 교통

☎ 이(개)장 관례, 장례/화장 절차에서
안치/봉안까지 24시간 상담 가능!!



24시간
상담문의

(032)834-1131/832-1131
www.jungtown.co.kr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806-12

가스공 깐깐한 입찰공고 철회 지역업체 참여 방안 모색키로

중소기업 측 대형공사 자격완화 요구...공사 “적극 검토”

1000억원대 대형 공사를 발주하면서 인천지역 업체를 배려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결국 입찰 공고를 철회하는 등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쪽으로 입찰을 재고하기로 했다.

<인천일보 12월8일자 1면>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는 1400억원대 기화송출설비공사 입찰 내용을 재검토하기 위해 관련 공고를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11월24일 인천생산지 3단계 1차 기화송출설비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낸 바 있다.

참여 자격은 가스시설설비공업 제1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사업 등록업체로, 10년 이내에 국내·외에서 동일 공사 및 유사 공사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였다. 공동이행방식

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대표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 구성원 모두 입찰 참여 자격을 갖추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조건을 갖춘 인천 지역 업체가 4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대기업이라는 것이다. 공사가 입찰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입찰에 참여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셈이다.

이에 지역 업체들은 공동이행방식이 아닌,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조건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담 이행 방식의 경우 4가지 자격 기준을 모두 갖추지 않더라도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함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공사 금액을 낮춰 분리 발주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최소

한 분담 이행 방식으로 입찰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입찰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공사를 대기업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스공사가 인천지역 업체를 배려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철회한 만큼 입찰 참여 기준을 조금이라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 역시 인천지역 업체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시와 지역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우선 입찰 공고를 철회하고 공사 내 계약실무위원회가 재검토를 하고 있다”며 “공사 역시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계에서 최대한 지역 업체를 배려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성원 기자 csw0405@incheonilbo.com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도 4분기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 4분기 통합방위회의 개최

인천시는 11일 영상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4분기 인천시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인천아시아안계임과 인천장애인아시아안계임 동영상 시청, 최근 북한군 주요 동향보고, 인

천시 통합방위작전계획 추진사항 보고, 2015 시민 및 청소년 나라사랑 교육 추진 계획 보고, 2015년도 인천시 통합방위회의 운영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유 시장은 “인천아시아안계임과 장애인 아시아안계임의 성공 개최로 인천의 브랜

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로 도약하는 기회가 됐다”고 강조하며 “올 한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특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았던 만큼 앞으로도 지역안보태세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한 포괄적 안보에 더욱 힘써 달라”고 참가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시의회·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AG·APG 성과와 과제’ 토론회

“전반적 성공” vs “대망신 대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 여부를 두고 대회 조직위원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조직위는 ‘대회 성공’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망신’이라는 극단적인 평가까지 나왔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11일 오후 2시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장애인대회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신원 조직위 운영지원본부장은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대회운영 결과’라는 발표문을 통해 안전대회 실현, 알뜰대회 운영, 스마트 대회 구현, 풍성한 대회기록 양산, 대회보험 및 흥행모임 성공, 남북체육교류 및 화해 전기 마련, 국민적 에너지 응집·분출, 시민 자긍심 고취 및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한국갤럽의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대회가 성공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답했다.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답은 42%를 기록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같은달 인천시민 721명을 대상으로 범시민지원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정반대이다. 이 조사에서는 잘했다 19%, 보통 30%, 실망스럽다는 답변은 49%에 달했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의대 사무처장은 “대회로 인해 2조1996억원



1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천 아시아안계임·장애인아시아안계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직위

외부 평가

도시가치 향상 등 호평
설문 47% 긍정적 답변

각종 사고·호응 저조
시설유지 매년 500억

정했다. 정회준 동아대 교수는 ‘대망신 아시아안계임, 그래도 한 번 더’라는 토론문을 통해 “언론기사 제목대로 대망신 수준이었다. 개막식에서부터 뼈격이더라. 다양한 사고가 터졌고 주민 호응도 얻지 못했다”라고 혹평했다.

정 교수는 “스포츠 메가이벤트의 ‘물지마’ 유치는 비이성적이었고 선거용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발도 심했다”라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사를 치르기 전에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지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의대 사무처장은 “대회로 인해 2조1996억원

을 소요했고 이 가운데 시가 1조6702억원을 부담했다”라며 “15년간 매년 673억원에서 1573억원을 상환해야 할 처지다”라고 밝혔다. 이어 “매년 경기장 유지비로 5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해야 할 실정”이라며 “대회로 인한 지방채를 채무비율에서 제외시키고 보통교부세를 더 받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낙형 범시민지원협의회 실행위원장은 “말도 많은 대회였지만 잘잘못을 가리지 말고 잘한 점과 못한 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경험은 앞으로의 국제 대회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박진영 기자 erhst@incheonilbo.com

‘주머니 얇은 인천시’ 복지재단 설립 내후년에

재정난 탓 재산출연 어려워...복지계 설득도 상당 시일

인천시가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요 복지 공약 중 하나인 복지재단 설립의 시기를 오는 2016년으로 미뤘다. 재단을 만들려면 시가 재산을 출연해야 하는데, 이를 마련하기엔 시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가장 ‘인천행복재단’의 설립 시기를 내후년으로 미뤘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당초 사회복지법인 형태로 재단을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30억원의 재산을 출연할 계획이었다. 설립 전까지 재단의 운영방향, 민간단체와의 기능 조정, 인천형으로의 특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시는 지난 8월 ‘주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복지재단 설립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극심한 재정난이 있었고, 사회복지 시설 예산의 상당 부분이 삭감된 상태에서 재단 설립을 강행할 수 없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던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재단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은 지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당시 시는 송영길 시장의 공약에 따라 기금 300억원을 목표로 사회복지기금 90억원을 우선 출연해 재단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른 재단 운영비는 매년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당시 민간 단체와 사회복지 기관의 기능 중복 문제 때문에 반발이 극심했고, 재정난 상황에서 운영비 지원은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 시가 계획을 한 차례 접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나 복지 기관의 상당수는 재단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지역 복지계가 ‘민생예산 삭감’에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라 자칫 복지 예산을 깎아 재단을 만든다는 논란을 키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단 설립을 위해 복지계를 설득하고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st@incheonilbo.com

아이가 울지 않도록
것을 주는 엄마가 좋은 엄마입니다.
동두천은 안보의 따뜻한 손길과 배려를
요구합니다.

63여 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 추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국가의 위로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정치 인천시당위원장 어떻게 뽑나

후보 출마 여부 따라 '추대·경선' 방식 택일 예상

내달 31일 실시...신학용·문병호·홍영표 등 거론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위원장 선출일이 내년 초로 확정된 가운데 위원장 후보군과 선출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 시당위원장은 당 내 분열을 방지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위원장 간 합의를 통해 '합의 추대' 방식으로 가닥을 모으지만, 2명 이상의 후보군이 나타나고 단일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당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1월31일 오후 4시 인천고등학교에서 개최되는 인천시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신임 시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역정가에서 거론되는 시당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신학용(계양갑)·문병호(부평갑)·홍영표(부평을) 의원 등이다.

먼저 신 의원의 경우 그동안 위원장직 출마 여부를 고심하다가 최근 출마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당위원장 대행 맡고 있는 신 의원은 앞서 2012년 6월부터 안철수 신당과 합당하기 직전인 2013년 4월까지 10개월여 간 위원장직을 맡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당헌·당규 상 시당위원장 재임기간이 2년임을 감안할 때 신 의원이 시당위원장직을 제대로 맡은 적이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위원장직을 다시 이

어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은 위원장 선출일이 50여일 가량 남은 만큼 여러 의견을 수렴하며 출마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가장 유력한 시당위원장 후보로 떠올랐던 홍 의원의 경우 출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 의원이 원하는 '합의 추대'가 되지 않고 또 다른 후보군이 나타날 경우 '경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시당위원장직을 양보한 만큼 이번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홍 의원 측근 등은 "(홍 의원은) 합의 추대가 되지 않을 경우 경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그동안 위원장직을 양보한 만큼 지금이 위원장직을 맡을 적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 의원은 지역정가에서 거론되는 것과는 달리 시당위원장직에 큰 관심

을 갖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원외로서 시당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지금 위원장직을 맡아도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인천시당위원장 후보군으로 신학용·홍영표 의원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남은 기간 동안 양 의원 간 대승적 합의에 따라 위원장 선출이 '추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경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시당은 지난 10일 지역위원장 회의를 통해 시당 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신동근 전 시당위원장을 임명했다.

시당은 오는 13일 부평갑 지역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21일까지 12개 지역위원회의 대의원대회 개최를 통해 전국·지역대의원 구성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비즈니스 협력 기회 확대해야”

박 대통령 특별정상회의 기조연설

韓 기업 적극 활용 애로사항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첫 일정인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아세안은 아태지역 국가와의 양자 FTA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이끌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올 한해만 중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과 FTA를 타결하는 등 전 세계 GDP의 74%를 차지하는 나라들과 FTA를 타결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아세안 FTA는 한국 기업의 활용률이 다른 FTA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 자유화율이 높지 않고 원산지 기준이 복잡한 것이 주된 이유”라며 “이런 점에서 이번에 양측이 무역 원활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아세안 FTA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더 많은 기업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위해 연설대에 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화와 원산지기준 개선이 뒤따라기를 기대한다”며 “양측 정부가 조속히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인 여러분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한-아세안 양측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양측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양측 경제협력 범위를 에너지와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이완구(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윤근(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안 세부적 이견...합의 하루만에 빠격

與 “공무원연금 개혁·자원외교 국조 동시” 野 “정략적 접근” 연계 거부

여야가 2+2지도부 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착수와 자원외교 국조 실시를 주고받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적 이견을 보이면서 대치 정국이 재연될지 주목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조 계획서를 처리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처리 시한과 자원외교 국조조사 실시를 연계하면서 이를 부인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연금과 자원 외교에 대한 국조 문제는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내겠다

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기구와 국회 특위의 활동 시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의 처리 시한 등을 미리 확정하지 않는 이상 자원외교 국조를 먼저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자원 외교는 정권별이 아닌 사업별로 가겠다”고 덧붙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정략적 접근”이라며 반발하면서 연발 정국에 점차 냉각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안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국회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

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나 공무원연금 개혁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다”며 “기한을 못 지키지 않았지만 우리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사자방 국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국조에서 성역없는 진실규명에 나서겠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번 합의에서

빠진 4대강 국조에 대해서도 추후 협상에서 관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밝히지 못한 의혹이 많고 4대강 사업 이후 부작용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4대강 국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 (4대강 국조 문제는)다음 주에 논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자원외교 국조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명박 형제와 정권 실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조는 성역 없이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런 자원외교에 수많은 검은 거래의 의혹이 있다.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국조를 통해서 자원개발의 문제점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해외자원개발 원칙 기준과 추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을 같이 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동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천연가스(LNG)의 지역자 원시설체 부과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제법 개정안(2013.1)을 금년 안에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천 송도에 위치한 천연가스(LNG)시설은 추가증설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심한 만큼 위험시설에 따른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등 비용이 발생하지만, 화력·원자력발전과 달리 지역자원 시설체 부과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아직도 산재된 현안들이 많지만, 일부라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국민들의 어려운 삶에 조금이나마 희망과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큰 줄기에 어긋나지 않게 한 단계 한 단계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매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BB

☆ 공장 · 창고, 나대지 상가 임대매매접수 받습니다 ☆

B2B공인중개사사무소

비투비공인중개사사무소 전속물건 공개매각

비투비와 함께하는 고객님의 물건을 공개 매각 합니다.

1. 인천 중구 향동7가 93-10번지 7050.6㎡(구2,133평) 현 철강회사
2. 인천 중구 신흥동3가 50-4,5번지 전체 23,730㎡(구7,178평) 1,322.3㎡(구400평)이상 분할매각
3. 인천 중구 향동7가 65-45번지 198.2㎡(구60평)
4. 인천 서구 오류동 810번지 외 3필지 5,584㎡(구1,690평)
5. 인천 강화군 불은면 신현리 186-3번지 4,295㎡(구1,299평) 공장허가, 토목공사완료.
6. 경기도 화성시 화리현리554, 265-2,6번지 계획관리 4,492㎡(구1,358평) 공장, 창고 로 가능
7. 인천 연수구 동춘동 810-11번지 근린상업용지 1,858㎡(구562평)
8.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227번지 4,959㎡(구1,500평)
9. 인천 연수구 선학동 405번지 상가건물
1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산22-3번지 10,962㎡(구3,316평)공장허가, 토목공사완료.

이외 기타 다수의 물건보유 매매,임대 매물접수 환영.

1. 인천 서구 심곡동 대로변 13,980㎡(구4,229평) 추천
2. 인천 연수구 옥련동 동춘동 해안도로부지 평수다양 추천
3. 인천 중구 향동7가 63,324.4㎡ (19,155.6평) 추천

문의전화 : 032-859-8945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405-4번지 대표공인중개사 김중윤

땅 급매

인천시 서구 경서동 (잡종지)1004평

비닐하우스, 화원, 농장, 창고
경명대로 LG 전자 캠퍼스 앞 대로로 진입

매매가 : 22억 (평당 220만)

물류창고 매매

인천시 서구 공촌동 (대지) 181평

- 건축물 샌드위치 판넬 2층구조
- 1층 : 98평 ● 2층 : 20평
- 창고 현재 임대중
- 경명대로 진입

매매가 : 12억 6천만

인천서구 열린부동산

TEL.(032)562-6288 / 010-2774-0500

‘바다모래 채취...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공청회

“건설골재 공급 연구 구체화 필요”

생태계·어획량 감소 잇따라
장기적 공급 따른 대책 시급

해양 생태계 교란, 어획량 감소, 해저 지형 변화 등 바다 모래 채취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반면 건설에 쓰이는 골재 채취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바다 모래 채취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천 지역에선 더욱 절실한 고민이다. ‘바다 모래 채취로 인한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 공청회가 11일 오후 주민과 골재 사업자, 학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하대 공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공청회를 주관한 인하대 서해연안환경연구센터 최중기 소장은 “그동안 덕적도, 굴림도 등이 있는 경기만에서 2억t이 넘는 골재가 채취됐고, 앞으로도 채취량이 연간 700만t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양의 모래를 어디서, 어떻게 공급하느냐를 연구하는 것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골재는 콘크리트에 쓰이는 모래나 자갈 등 건설 산업의 기초재료를 말한다. 정부는 5년마다 골재수급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장기 수요·공급을 전망해서 골재 자원을 확보하고, 안정적 공급을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3년 12월 수립한 5차(2014~2018) 골재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전체 골재 공급량 가운데 바다가 차지하는 비중은 14.6%에 달한다.



11일 남구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린 ‘바다골재 채취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공청회’에서 한경남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교수가 해사채취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황기선 기자 juanita@incheonilbo.com

특히 인천 지역 바다 모래는 상당량에 이른다. 인천 지역 연안에선 오는 2018년까지 4000만㎥의 바다 모래가 채취될 예정이다. 하지만 모래 채취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결음마 단계다.

최 소장은 “정부나 사업자가 몇 차례 연구하긴 했지만 단편적이었다”며 “수산자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생태계 교란이 있는 것도 틀림없지만 어느 정도인지조차 모른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환경 영향을 줄이는 대안으로 골재 단지를 지정해 격년제로

채취하고, 여러 개 광구를 활용해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논의됐다. 어류 산란기인 7~8월에는 채취를 자제하는 안도 나왔다. 웅진군은 자체적으로 채취 금지 기간을 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환경 단체는 골재 채취가 불가피하다는 데 근본적 의문을 던졌다.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사무처장은 “국토부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 때 파낸 모래가 전국에서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었는데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외국처럼 준설도 재활용을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천감도 주변 해

역에서 모래를 채취한 지 30여년 됐지만, 아직 모니터링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건설 경기를 활성화해야만 국가 경제가 살아난다는 등식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씨한국골재협회 이성재 인천지회장은 “사업자들도 어민과 마찬가지로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는 해양인이기 때문에 환경 분야에서 정부 정책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며 “연구비 투자를 늘리고, 정부에도 건의해 환경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준민 기자 smilee@incheonilbo.com

“병방시장 상인 6명 이전비 보상해야”

권익위, 공영주차장 조성 따른 영업손실비 지급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천 계양구 병방시장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상인들에 대해 사업 시행자인 관할 지자체가 영업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천일보 11월27일자 19면> 권익위는 계양구가 상인 6명에 대해 영업 손실 보상비와 주거 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 시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이라고 판단했다.

공익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시행한 계양구가 상인들

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게 권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영업을 했던 상인들과 주거인들의 보상을 시행자가 하는 것이 맞다”며 “특히 병방시장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인 지자체가 관계인들에 대한 보상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내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병방시장 상인들은 지난해 1월 계양구가 사업부지 내 건물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 계양구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최성원 기자 csw0405@incheonilbo.com

(주)워터웨이플러스 ‘취업 아카데미’

요트운항관리·관광사 교육생 모집

퇴직 앞둔 중장년 ‘인생2막’ 도전을

19일까지 45세 이상 구직자

(주)워터웨이플러스(사장 김중해)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요트운항관리(관광)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요트운항관리(관광)사란 요트운항, 관리, 정비, 판매 등에 관한 전문 교육 이수를 통하여 요트에 관한 토발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람을 뜻한다.

(주)워터웨이플러스는 금번 교육을 통해 중장년 퇴직(예정)자들이 급변

하는 기술과 사회환경에 적응하고 체계적 인생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용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또 해양레저산업 전문가 및 관련기업이 참여해 수료 후 바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교육 위주로 진행한다. 오는 19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하며 교육대상은 45세 이상 구직자다.

수료자에게는 취업지원 및 창업무료컨설팅이 이루어지며, 교육은 오는 26일부터 2개월간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aterway.or.kr)나 전화(031-999-7889)로 문의하면 된다.

(주)워터웨이플러스는 금번 교육을 통해 중장년 퇴직(예정)자들이 급변

/문학극 기자 moonhi@incheonilbo.com

SK인천석유화학 환경영향조사서 투명화 촉구

화학물질감시인천네트워크·변호사모임, 비공개결정취소 소송…“국민 알권리 침해”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화학물질감시인천네트워크(준)가 인천지방법원에 인천 서구청의 SK인천석유화학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통보서 비공개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는 지난 8월과 11월 인천녹색연합과 지역주민이 각각 공개 청구한 환경영향조사서 292쪽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4쪽을 비공개 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예외 조항이 명시돼 있는데 서구가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관련법에는 개인정보라 해도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롯해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 및 건강상의 위해와 관련된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서구가 증설 준공 승

인한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납사를 분해해 파라자일렌을 얻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 벤젠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데, 공장 가동 중 납사가 유출되는 등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환경영향평가가 공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

법부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승인 또는 결정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이나 조치사항, 사업의 목적과 경위 등은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부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의 내용은 국가 기밀에 포함되거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성원 기자 csw0405@incheonilbo.com

올해 남구 노인 2200명 일자리 제공

지난해비 30% 증가…“안정적 노후 제공·지속적 창출 노력”

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2200여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구에서 일자리를 구한 노인 1755명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9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지형 일자리 사업 422명, 교육형 일자리 사업 280명, 공동 작업장 203명, 인력 파견 197명, 시니어인턴십 176명, 시장형 81명, 사회

참여 지원 12명 등 순이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자는 4455명으로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60세 이상 여성이 2256명으로 2199명인 남성보다 57명 더 많았다.

구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은퇴 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내실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2@incheonilbo.com

그림같은 숲속의집!

인천 물림벙이

전품목 포장가능!

신메뉴 해족찜

- 아구찜
- 아구탕
- 해물찜
- 낙지덮밥
- 맨땅의의덮밥
- 물메기탕
- 돈까스

마직도 봉헌동에 가십니까? 쾌적한 환경, 넓고 편리한 주차공간! 경치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도 즐겨 보세요!

주차100대가능/족구장 완비

단체예약 환영

032) 433-925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95-3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032-578-4585 010-5352-2777

1. 공장매매	2. 임대공장(창고)	3. 기 타
① 위치 A급, 3급정비공장 대지70평, 건물38평 매매가 7억 2천 (현재임대료 보7,000/월410만) 순투자수익률 10%이상	① 동구 송림동 1층 100 사무실 10평 동력60KW, 호이스트 2.8톤 높이(최저5.1M~7M) 보증금 2,500만/월 250만	① 상업지역 여인숙 (현재영업중) 객실 13개 / 주인주거가능 2015년 지하철거통 예정지역(역세권) 매매가 1억9천
② 강화 송해면 대지500평 건물70평 창고60평 높이 6M 계획관리지역 (급매가 4억5천) 공장, 창고, 공방, 작업실, 2층주거로사용가 <공장등록가능> 트레일러 진입가능, 강화 관청리 5분거리	② 계양구 창고(공장) - 70평형 : 출입구2개소, 높이5M 5톤차량 실내 진입가능, 주차면적확보 - 30평형 높이5M 프레스 가능	② 송림동 대로변 상업지역 나대지매도 24평 (가건물있음)
③ 서구 오류동 공장 대지620평 건물 180평 급매가 15억 용도 :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③ 서구 대형창고 대지 4,500평 건물 2,000평, 사무실300평높이11M, 교통편리 대형차진출입 용이 보증금 10억 / 월 7,300만	③ 박촌동 자연녹지 대로변코너 도로점 850평, 450평 (화원, 아적장가능)
④ 철재상가 (40평형) 높이10M, 호이스트 2.8톤 매매가 3억2천	④ 서구 가좌동 1층 50평 2층 20평 호이스트 2.8톤 높이9M 보증금 1,800만/월180만	④ 시흥시 신천동 상가주택 2억7천만원 (2016년 지하철거통 인근지역) 대지37평 1층21평, 2층20평(지하별도)
⑤ 대지 70평 1층50평 2층20평 높이9M, 호이스트 5톤설치 동력50KW 매매가 4억5천만	⑤ 상가 및 소형제조가능 공구상가 20평 사무실별도 5평 동력 20KW	아라뱃길 북측 아적장 임대 1,000평 ~ 5,000평 (분할)가능 평 당 임 료 : 월 4,500원 전 용 비 율 : 85% 추 천 업 종 : 수출입관련, 목재 석재, 원자재등
⑥ 아파트형공장 실평수94평 & 62평 / 매매가4억5천만원 순투자수익률 12%이상	⑥ 김포시 대곶면 공장 매매가 6억5천 대지340평 /1층공장 110평/ 2층사무실 20평/ 3층공장 110평 대형차진입, 호이스트有, 높이 6M	

“中企 차부품·생활가전·화장품 수혜”

한국-베트남 FTA 타결

車 KD·KS 전자재 업체 무역 경쟁력 확보

인천 수출 3% 불과...경제효과 한계 지적도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힘입어 타이어와 자동차 부품, 생활가전, 화장품 업종 등 국내 중소기업에 위주로 한 수출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한·베트남 FTA 체결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동안 주로 생산기지로서 자리해 왔던 베트남이 유망 시장으로 거듭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모른다’는 의견도 업계에선 적지 않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베트남 FTA 체결 소식에 자동차 관련 업종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코트라는 베트남의 높은 경제 성장으로 화물차, 버스 등이 급증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자동차 업체가 만든 트럭이 현지에서 인기가 높을 뿐 아니라 열악한 도로 사정과 과적 등의 관행으로 타이어 및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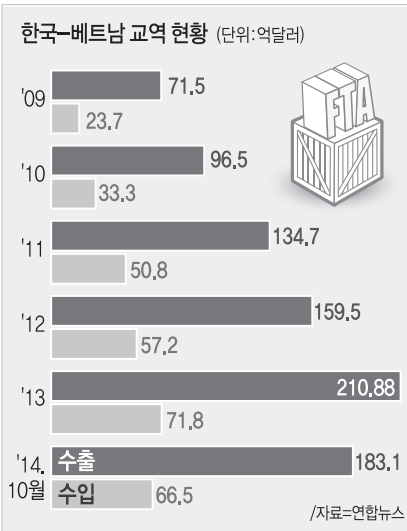
품 교체 수요가 매우 많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인천 남동구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 관계자는 “중국이나 동남아 제품에 비해 한국산 타이어나 자동차 제품의 이미지가 좋다”며 “관세 인하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부품 시장 5년 내 관세 철폐로 국내 업체는 KD 수출(부품을 수출해 현지에서 조립 판매하는 방식)을 통한 현지 조립 진출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은 자동차 부품 업계가 한·베트남 FTA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천지역 자동차부품 수출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09년 15억5900만 달러에 그쳤던 수출액은 작년 27억600만 달



러까지 치솟았다. 지역 전체 수출 규모에 9.9%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신도시, 주택 건설 붐으로 수요가 많아지는 베트남 전자재 시장에서 긍정적 인 효과와 예상된다. 그동안 베트남에 수출하고 싶어도 품질인증을 베트남 현지에서 별도로 다시 획득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높은 인증획득 비용 때문에 국내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FTA에서는 우리 KS마크를 베트남에서 인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 전자재 업계에 기대감을 안기고 있다.

특히, 인천의 수입 국가 가운데 베트남

은 10위권 밖이라,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혜택에서 우리나라가 더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제는 베트남의 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데 있다. 물론,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놓고 보면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 수출 규모 가운데 3%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비춰 보면 한·베트남 FTA가 가져올 경제 효과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있다.

지난 5년 동안 대(對)베트남 수출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세는 아니다. 2009년 5억9200만 달러에서 2010년 5억5000만 달러로 줄더니, 2011년 6억1400만 달러로 상승하는 등 들쭉날쭉한 모습이다.

작년에는 베트남으로 총 7억2600만 달러 정도를 수출했는데, 그 비중은 전체 수출 순위로 베트남은 9위 정도다.

인천지역 한 중소기업 자원기관 관계자는 “베트남 시장이 비교적 거대하지는 않지만, 매년 가파른 경제 성장은 주목할 점”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은 물론, 내수 기업들도 최근 계속된 FTA 체결 등을 예의주시해 시장 변화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원진 기자 kw7991@incheonilbo.com

■ ‘2014 인천 무역의 날’



11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14 인천 무역의 날’ 행사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천만불 이상 수출을 이룬 기업대표들이 수출탑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기선 기자 juanito@incheonilbo.com

올 수출 300억달러 달성 전망

현대제철 등 97개 업체 수출탑 수상

올해 인천지역 수출이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300억 달러’ 달성을 기념하기 위한 ‘2014 인천 무역의 날’ 행사가 11일 오전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홀에서 열렸다.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시가 함께 이날 행사는 어려운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인천 수출 최초 300억 달러 달성에 힘쓴 무역 여군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서 ‘수출탑’은 현대제철(주) 40억불 탑을, (주)경신이 8억불 탑을 받는 등 인천 지역 97개 업체가 수상했다.

또한, 현대제철(주) 김영환 부사장과 (주)박남옥 상무이사가 동탑 산업훈장을, (주)동보 이구진 계장이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우수전자산업(주) 염동훈 대표이사 와 (주)에센 문윤섭 대표이사, 현대제철(주) 홍종철 부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38명의 유공자들에게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무역협회장 표창을 각각 수여됐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혁신과 창의적인 제품·기술 개발 노력 등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힘쓴 (주)인근과 (주)서울화장품 등 13개 기업이 인천 무역유공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주)피플 김상인 부사장 등 6명이 인천 무역유공자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무협 인천지역본부는 올해 인천지역 수출이 지난 10월 말 기준 250억 달러에 달해, 연내까지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은 380억 달러로 작년과 비슷해 무역수지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총 기자 airin@incheonilbo.com

김치·단무지·떡 등 7품목 중기 적합업종 지정

김치와 단무지, 전통떡 등 7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32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12개와 신규 신청 품목 2개 등 14개 품목을 심의해 이 가운데 7개를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은 김치, 기타가공사(가연기), 냉동·냉장 쇼케이스, 단무지, 도시락, 전통떡, 보험대차 서비스업이다. 이 가운데 보험대차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품목은 이번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됐다. /김원진 기자 kw7991@incheonilbo.com

인천중기청 ‘中 시장 진출 설명회’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18일 인천중기청 소강당에서 지역 수출 중소기업에 위해 해외(중국 중점) 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설명회를 마련한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발효 예정인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감안해 중국 시장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중기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incheon/>) 공지사항 참조 /김원진 기자 kw7991@incheonilbo.com



“우리 집 분위기를 있게 꾸며 보세요”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홈·데이블 데코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땅콩 리턴’ 조현아 오늘 국토부 출두

〈대한항공 전 부사장〉

대한항공 “성실히 조사 임할 것”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2일 국토교통부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다.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받고자 12일 오후 3시 김포공항 인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한다고 11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1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국토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추후 조사받겠다고 밝혔다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

조 전 부사장이 12일 출석하기로 한 것은 국토부가 조 전 부사장이 빨리 조사받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데다, 검찰이 이날 오후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만발인 조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

제삼자 사무장을 징책하며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 측으로부터 출석 의사를 통보받았다면서 “고성이나 욕설 등이 있었는지와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경위,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경위 등을 모두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은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히 임해 국토부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지난 8일 8명의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를 시작해 기장과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10명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한편, 국토부는 사건이 일어난 1등석에 있던 탑승객 1명과 1등석 바로 뒤 일 반석 승객 등을 상대로 한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주택·상가·공장 신축, 증축

○완벽시공
○원가절감
○하자보증

주택: 평당 250~270만원
상가: 평당 220~240만원
공장: 평당 130~150만원

■주택·상가 건축

외부맞구조물: 〈철근+콘크리트〉외장마감재
내부마감: 아파트형 고급내장마감

■공장·창고 건축

철구조물+불연재판넬 (높은층고+공기단축+완벽방수)

☆공장 및 주택, 증축 및 보수공사☆

내부구조 변경공사, 인테리어공사, 토목공사, 외벽 및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德壽建設
인천시 동구 송림동 67-11

T.032)764-0518 / 휴대폰:010-5242-6533

현대건강원 농장직영

각종엑기스 가공 및 건강식품 판매

○ 흑염소, 홍삼, 장어, 배
○ 붕어, 돼지감자, 도라지, 칩
○ 포도, 호박, 다슬기

※ 국가유공자 우대

※ 연말연시 업체 지인분들 선물용으로 최고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02-8번길 1층

TEL : (032)467-5855

FAX : (032)473-0904

H·P : 010-4824-6197

화성시 공고 제2014-3024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일원의 신경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4. 12. 12.

화 성 시 장

1. 위 치: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산96번지 일원
2. 도시관리계획(시설(대학교)) 결정 조서(안): 화성시 홈페이지 참조
3. 관계도서: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포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게재
4. 열람장소: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369-2467), 남양읍사무소
5. 열람기간: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포함)
6.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남양읍사무소에 서면 또는 환경영향 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7. 관계도서를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당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및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369-24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양도 및 양수 공고

금성종합전기(대표자: 장경자)는 ㈜금성종합전기(대표자: 장경자)에게 전기공사업을 양도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법 시행규칙 제 7조와 2항에 의거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양도대상 전기공사업 종류: 인현-00208
2. 양도(양도)일: 2014년 12월 15일
3. 양·도·자: 상·수: 금성종합전기
대표: 장 경 자
주소: 인천시 서구 괴로로20번길9
전화: 032)576-7311
4. 양수자: 상·수: 금성종합전기
대표: 장 경 자
주소: 인천시 서구 괴로로20번길9
전화: 032)576-7311

2014년 12월 12일
양도자: 금성종합전기 대표 장 경 자

상속한정승인공고

인현지방법원 2014년 12월 30일 상속한정승인 사건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2014. 11. 20. 심판, 판사 최안나)을 받은 아래 청구인(상속인)은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최고)합니다.

청 구 인
1. 임 형 순(341130-2xxxxxx)
주 소: 인천 남구 북매로434번길 34(송림동)
승인장소: 인천 남구 송림로 175-24 1층(북매동)

피상속인(망)
김 승 태(260626-1xxxxxx) 2014. 8. 20. 사망
최 후 주 소: 인천 남구 미추로 1(송림동)
등록기준지: 경북 울릉군 울릉읍 죽도리 30

위와 같이 상속인의 심판청구인은 상속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위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이 공고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하기 바라며,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4. 12. 12.
위 공고인: 임 형 순

news.itimes.co.kr
인천일보에는
네고정의 모든 소식과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의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032)452-0114
광고문의: 032)452-0151

대우 송도 개발부지 매각에 컨소시엄 4~5곳 경쟁 치열

주관사 삼정 27~28일 신청서 받아 우선협상자 선정 매입의향 금액 3000억 넘어야 채권단 동의 받을 듯

토지 소유주의 파산으로 공매와 경매가 동시에 진행 중인 대우송도개발 부지를 취득하려는 신규 부동산개발사업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달 말로 예정된 인천시의 대우송도 개발부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기간의 종료로 연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시가 예정대로 대우송도 개발부지에 대한 관련 인·허가를 취소한 뒤 새롭게 절차를 밟을 경우,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따르고, 신뢰 문제 등으로 향후 개발 사업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정(KPMG) 회계법인인 지난 달 7일 대우송도개발(주) 보유 도시개발사업 및 테마파크 사업부지(92만4825㎡)에 대한 매각 공고를 했다. 삼정은 대우송도 개발부지 매각 주관사이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매각 공고를 통해 삼정은 27~28일 양일간

참가 신청 및 인수의향서를 받아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이후 협의 등을 거쳐 해당 토지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삼정은 11~16일까지 우선협상자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고 이후 지역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지인&대성에셋(주) 등 4~5개 부동산 개발 관련 컨소시엄이 삼정을 상대로 해당 토지 매입 가격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삼정 측은 대우송도 개발부지 우선협상자 지위를 받기 위해선 최소한 3000억원이 넘는 매입 의향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 채권액이 1조1875억원인 점을 감안해 매입 의향 금액이 3000억원을 넘어야 채권단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삼정 측의 생각이다.

업계는 매각 주관사와 대우송도 개발부지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올해 12월 31일로 예정된 인천시의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기간 종료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정난에 빠진 인천 입장에서라도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을 펴다.

대우송도 개발부지는 인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홍물로 남으면, 미관(중고차 야적장 사용 등) 및 환경 문제 등 여러가지 골치 아픈 일로 인천시가 골머리를 앓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정적으로도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토지 소유주인 대우송도개발(주)이 파산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어 예정된 도시개발사업 시행 기간을 끝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안에 대우송도 개발부지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도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관련 인·허가 취소를 보류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송도 개발부지는 담보채권자 가운데 한 곳인 PIA송도개발유한회사(채권 805억원) 회수를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해 현재 진행 중이다. 경매가격은 사상 최고 금액인 1조481억원이다. /인천동 기자 airin@incheonilbo.com



‘이천도자페어’ 관람객 복적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천도자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부스에 전시된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설명회

30개 기업 참석...사업권 쟁탈전 ‘후끈’

8구역 대기업
10곳 관심...복수입찰 가능
1사 최대 4개구역 차지

4구역 중간·중소기업
구매력 높은품목 복수 사업권
20곳 관심...독과점 해소 기대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자 선정 작업이 시작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공)는 11일 청사 대강당에서 ‘국제 입찰’로 발주된 ‘인천공항 제3기 면세사업자 선정 위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를 비롯해 한화, 신세계, 위커킨, 현대, DFS, 듀프리, 킹 파워(King Power) 등 10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체간 사활을 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과 탑승동 면세매장(총 1만7394㎡)을 총 12개 사업권으로 나눠 사업자를 선정한다.

특히, 설명회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된 4개의 사업권에 무려 20개사가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대기업이 참여하는 8개 사업권은 복수 입찰 허용으로 한 사업자가 최대 4개 사업권을 차지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최소입찰금액(1년 기준)은 708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2013년 임대료(6150억원) 보다 15% 늘어난 액수다.

주류와 담배를 취급하는 DF3 구역의 경우, 1㎡에 1억3800만원이 넘고, 사업 2년 차부터는 전년도 임대료보다 최소 2% 이상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 구역은 총 면적 2188㎡ 규모에 최소입찰액 약 565억원으로, 1㎡당 2600만원이다. 입찰가는 전체 평균의 60% 수준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구매력이 높은 품목인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판매사업자를 중소·중견기업 및 일반기업 사업권 복수로 변경해 독과점 구조를 해소했다.

탑승동은 적절한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면세사업자가 매장과 상품 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

‘사랑의 기네 동전’ 모으기 100억
아시아나 세계 취약층 아동지원

아시아나항공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1994년부터 펼친 ‘사랑의 기네 동전 모으기 운동(Change for Good)’ 모금액이 20년 만에 100억원을 돌파했다.

‘사랑의 기네 동전 모으기 운동’은 국내에서 사랑되기 쉬운 외국 동전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세계의 아동들을 돕기 위해 실시됐다.

모금 첫 해인 1994년 약 1억6000만원이 모금된 이래 2010년 누적모금액 50억원, 2012년 70억원, 올해 100억원을 돌파했다. 2012년부터는 해당 모금액이 평균 10억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기내에서 모아진 동전은 아시아나 승무원들의 계수작업을 거쳐 매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전달되고 있다. 국내에서 환전이 불가능한 동전은 1년에 2회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런던에 위치한 환전업체 ‘CCI’로 보내진다.

유니세프는 이렇게 모은 100억원을 아프리카와 아시아 취약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말라리아 예방 활동과 신생아 보건 지원 활동, 어린이 학교 만들기, 긴급 구호 상황에서의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해 왔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승진

4본부·5공장·1연구소 체제 구축

동국제강은 장세욱(사진)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고, 4개 본부와 5개 공장, 1개 연구소 체제로 조직개편한다. 내년 1월1일이다.

동국제강은 이번 인사에서 장 사장의 부회장 승진과 함께 남윤영 사장을 열연사업 본부장으로, 이용수 부

사장을 냉연사업본부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부회장 1명과 상무 4명, 이사 3명 등 총 8명의 임원이 승진했다.

동국제강은 조직을 열연사업본부와 냉연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 구매본부, 중앙기술연구소로 정비했다. 열연사업본부 산하에는 포항제강소와



인천제강소, 당진공장, 신평공장(옛 동국제강 부산공장)을, 냉연사업본부에는 부산공장(옛 유니온스틸 부산공장)을 생산기지로 배치했다. 조직 슬림화를 위해 동국제강과 유니온스틸의 조직을 직무별로 통합하고, 전략경영실은 폐지했다. /인천동 기자 airin@incheonilbo.com

IPA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접근이력관리 솔루션 도입, 컨설팅 완료

인천항만공사(IPA)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

IPA는 ‘개인정보 접근이력 관리 솔루션’ 도입과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접근이력 관리 솔루션’은 IPA 내부 직원이나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인천항 이용자나 고객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저장·수정·삭제·반출하는 행위 등의 사용 이력을 모니터링해 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IPA는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을 통해

올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지 않는 정보관리 체계에 대한 분석·개선과 함께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된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취약점도 보완했다.

이에 따라 현재 IPA는 보유 중인 고객정보 가운데 중요사항을 암호화해 저장·관리, 인터넷과 업무망 간 분리 운영을 통해 공사 및 용역업체 직원들의 정보 유출 방지에 나서고 있다.

/이문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환경사랑 지구사랑 캠페인

분리수거로 지구를 지켜요!

무심코 버린쓰레기로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꼭 지켜야 할때!!

- (주)SHN -



이천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내년 6월 '10개년 사업' 착수

이천시가 농촌지역의 난방 및 취사환경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도시 이외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이천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61%로 수치를 볼 때 결코 적은 비율은 아니다.

하지만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천시 행정구역은 14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4곳은 시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 동 지역, 나머지 10곳은 읍면 지역으로 부분적으로 형성된 소도시 구역을 빼면 대부분 농촌 지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10개 읍·면 지역은 동 지역에 비해 문화, 경제, 의료 등에 대한 접근성이 쉽지 않을 뿐더러 도시 가스 공급이 여의치 않아 겨울철 난방은 주유소에서 배달되는 등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취사 또한 배달용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러한 농촌 지역의 난방 및 취사 환경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 전역 도시가스 공급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조병돈 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내세운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재정과 읍·면 지역의 광역성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시는 지금까지 여러 계획들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먼저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관련 법규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사업의 타당성조사, 우선공급지역 선정, 소요 예산 등을 확정하기 위해 용역비를 확보했고 지금은 용역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조례는 올해 안에 의결을 마치고 내년 1월쯤 공포될 예정이다. 그러면, 도시가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코원에너지서비스(구 대한도시가스)에 사업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고, 사업은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병돈 시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사업을 통해 이천시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로드맵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6월쯤부터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첫 삽을 뜰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천=김광섭 기자 gskim@incheonilbo.com

용인시 '도 계약심사제' 최우수 운영

용인시가 올해 경기도 계약심사제 운영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계약심사제'는 공공기관에서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각종 사업 발주와 설계변경 과정의 원가를 심사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미리 없애는 것은 물론 해당 사업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제도다.

용인시는 올해 계약심사제 심사실적으로 약 110건 444억 원을 심사해 약 3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심사대상은 2억 원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등으로 절감된 예산을 일차리 창출과 주민 복지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하고 있다.

또 이와 함께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한 우수사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건전 재정 운용에 기여하는 계약심사제 운영의 효율화와 질 제고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허천희 기자 hurch01@incheonilbo.com

“밤낮없는 포격소리·오발사고 더 이상 못 참아”

포천 영평·승진사격장 대책위 '대정부 투쟁' 기자회견

“국가안보 불모지 60년동안 권리 침해·유린”

先 피해보상·인근주택 방음장치 등 6개항 요구

“관철·개선때까지 청와대·국방부 등 릴레이 시위”

군부대의 사격장 사고가 끊이지 않는 포천지역 주민들이 연합대책위를 발족한 가운데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1일 사격장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 의지를 밝혔다.

<인천일보 12월8일자 8면>

영평·승진사격장 대책위원회 박경우 위원장 등 10여명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민들은 지난 60년 동안 국가의 안보를 위해 군 사격장 피해에 대해 아무 이익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금 밤낮으로 비행기와 포탄이 날아오고, 총알이 집안으로 떨어져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영주 창수 영북 이동 4개면을 중심으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만약 개선이 안될 경우 대정부 투쟁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범정부 차원에서 안전대

책을 강구하고, 대책마련이 될 때까지 사격을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오발사고가 발생한 사격장을 폐쇄하고,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주거환경권 보장, 관공서와 학교, 사격장 인근 주택에 방음장치를 선이행할 것 등 6개항의 요구안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연간 320일 계속되는 예고없는 사격과 오발사고 피해에도 일체의 보상이 없었으며, 시민들은 늘 불안에 떨고 학생들마저 학습권 침해를 받았다”며 “그동안의 피해로 볼 때 1조원 이상의 물질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요구조건이 수용될 때까지 청와대, 국방부와 미8군, 안전행정부 등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등 대정부 투쟁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앞서 지난날 27일 창수·영중·이동



11일 포천시청에서 '영평·승진사격장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군부대에 안전대책마련을 요구, 호소하고 있다.

·영북면의 4개 면 마을 이장 등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평·승진사격장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 대책위 출범은 최근 포천 영북면의 한 에어컨 설치업체 사무실에 탄환 1발이 유리창을 뚫고 떨어지고, 2010년 8월 미군의 전차 연습탄이 영북면 야미2리 마을 도로에 떨어

져 도로 일부가 파손되는 등 오발사고로 인명·재산·환경피해가 끊이지 않은데 따른 것이었다.

대부분 미군의 영평사격장(1350㎡)과 한국군 승진훈련장(1895㎡)에서 각종 훈련 중 발생한 사고였다.

/글·사진=김성운 기자

swkim@incheonilbo.com

여주시 '정부 3.0' 실적

도내 최우수기관 선정

여주시가 '2014년 정부 3.0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경기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주시는 올해 2월 '2014년 정부 3.0 실행계획'을 수립, 시민을 위한 51개 실천과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실천해 왔다.

또한 원경희 시장이 주관하는 추진실적보고회 개최와 정부3.0 추진 실적 평가지표를 면밀히 분석한 자체평가관리카드에 의한 철저한 실적관리를 통해 전 부서의 참여도를 높이는 등 이러한 노력들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것이다.

한편 핵심국정과제인 '정부3.0'은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국민과 공유하고,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소통을 가로막던 칸막이를 걷어내 서로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차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여주=김광섭 기자 gskim@incheonilbo.com

마사회 '2014년 청렴도' 우수

한국마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마사회는 외부청렴도 10점 만점에 8.59점, 내부청렴도는 8.55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 대비 각각 0.64, 0.73점 높은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광천=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

목감지구 '노른자' 광명역세권 '후광' 수도권 '숨은진주'

호반건설은 시흥시 목감지구B4·B7블록 일대 '시흥목감호반베르디움 1·2차' 건본주택을 11일 개관하고 분양에 돌입한다.

'시흥목감호반베르디움 1차(B4블록)'은 지하 1~지상 25층 7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69㎡ 243가구 ▲84㎡ 337가구 등 총 580가구로 구성된다.

'2차(B7블록)'은 지하 1~지상 25층 8개동, 전용면적 기준 ▲69㎡ A타입 309가구 ▲69㎡ B타입 71가구 ▲84㎡ A타입 312가구 ▲84㎡ B타입 74가구 등 총 766가구로 건립된다.

두 단지를 합쳐 총 1346가구의 호반베르디움 브랜드타운이 구축

지상 25층 15개동 1346가구

64·84㎡ 분양가 900만원대

광명역 건본주택 11일 개관

브랜드타운 '랜드마크' 전망

왜 목감지구 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시흥 목감 호반베르디움의 분양가는 3.3㎡당 900만원대이고, 중도금 60% 이하 후불제가 적용된다.



'시흥목감호반베르디움' 1차 조감도.

/사진제공=호반건설

계약금 일부 분납(10% 중 1000만원 납입, 1개월 뒤 잔여 계약금 납입)으로 소비자들의 초기 부담을 줄였다.

청약일정은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2순위, 17일 3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차 23일, 2차 24일 진행된다.

계약기간은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이다.

건본주택은 광명시 일직동 406번지 광명역 8번출구 인근에 위치

해 있다.

입주는 1차의 경우 2017년 4월 예정이며 2차는 2018년 1월 예정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시흥시 목감지구는 수도권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저평가돼 있는 부분이 있다”며 “교통 여건을 이용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근의 광명역세권의 후광 효과까지 기대돼 고객 관심이 뜨겁다”고 밝혔다.

1688-1056

/시흥=김진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



화림국제의료센터

(외국인전용병원)

암, 치매, 중풍, 고혈압, 당뇨후유증, 희귀난치병, 신경통, 노인질환

임 원회 요양병원
신재시고 요양병원
자동차사고 요양병원
노인장기 요양병원
노인 전문 요양원
한·양방물리치료재활치료
한방 침, 뜸, 부항(약침, 특수치료)

화림요양병원
화림전문요양원
한·양방협진병원



입원문의 (032)751-8370, 8373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00-1(인천국제공항신도시) www.whalimmd.com

인천 소형공장 매매

● 소재지 : 가좌·C주변
- 인천지하철 2호선 역세권(가동예정)

● 면적

1층 264㎡(80평) 1층 331㎡(100평)

현금 6,000만원으로
내 공장마련 임대도 가능함

● 기반시설, 혜택

- 등·취득세 50%면제
- 재산세, 종합토지세 5년간 37.5%감면
- 화물엘리베이터(3리): 설치되어있음
- 주차장: 216대 주차시설 있음
- 즉시 입주, 동력: 제한없이 사용가능

분양 032)772-1680
문의 032)861-2900

대동건축

(상가, 주택전문)
(3.3㎡당 240만원)

(아파트 인테리어전문)
(주택수리전문)

▶ 설계·신축공사·증축공사 ◀
▶ 방수공사전문·용도변경 ◀
▶ 원룸신축전문·공장수리 ◀
▶ 공업사설시전문 ◀

※ 견적상담, 전화상담환영 ※

T.(032)766-1266, F.766-3666
H.P.010-4688-4551(대표 박영기)
인천시 동구 금곡동 54-80(동구청정문앞)

이번엔 예결특위 파행... 내년 준예산 편성?

시흥시의회 '市예산안' 회기내 통과 불투명

시흥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한 차례 파행(인천일보 12월5일자 8면)을 겪은데 이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또 다시 파행사태를 빚고 있다.

11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당초 자치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51개

항목 심의요구액 36억3100여만원 중 63%인 22억8600여만원이 삭감됐다. 예결위는 지난 10일 시 평생교육원이 제출한 시흥ABC행복학교 운영관 리비 1억4300만원, 시흥ABC행복학 교 운영비 5억5000만원에 대한 계수

조정 과정에서 표결을 진행했고 여야 3대3 동수가 나오자 재정지민주연합 장재철 예결위원장(다 선거구)이 원 안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예결위 표결에서 찬반 동수가 나오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된다'는 유권해석을 물렸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예결위가 중단 됐다. 새누리당 홍원상 의원(라 선거

구) 등 소속의원 3명은 정회를 요구 하고 표결을 거부한 채 거세게 항의 하는 등 예결위는 이날 밤 자정까지 파행했다. 다음날 시의회는 의장단 회의를 소 집하고 예결위 속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파행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시흥=김신설 기자 sskim@incheonilbo.com

용인 '안전사업' 국비 11억5000만원 확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용인시가 안전관련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국비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가운데 국비(체육진흥추진권 수 익금)1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용인종합운동장은 1995년 준공된 시설로 건물 균열, 누수 등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었으나 실 내체육관은 2003년 준공됐으나 관람석에 안전간간이 설 치되지 않아 관람객 안전사고 등이 우려돼 개·보수가 필 요한 상황이었다.

국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용인종합운동장 건물 구조보강, 방수 및 내·외벽 도색작업 등을 통해 안 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실내체육관 관람석 안전간 간 설치로 안전사고 위험을 제거해 안전에 대한 기대치 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용인=허찬희 기자 hurch01@incheonilbo.com

라온건설, 오늘 '신현 라온프라이빗' 견본주택 오픈

분당생활권... 인프라·학군 누려라

라온건설은 12일 분당생활권에 위 치한 '신현 라온프라이빗' 견본주 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 한다. '신현 라온프라이빗'은 경기 광주시 오폐읍 신현리 751-1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단지로 지하 2층 ~지상 15층 4개동 전용면적 ▲59㎡ 52가구 ▲72㎡ 113가구 ▲84㎡ 58가구 등 총 223가구 규모로 구성 된다.

▲분당과 맞닿은 '특급 입지여 건' 갖춰 수요자 손짓

'신현 라온프라이빗'은 분당과 맞닿은 신현1지구의 중심에 위치 해 AK프라자, 이마트, 서울대병 원 등 분당의 다양한 생활인프라 를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 다. 또 판교IC 경부고속도로와 분 당선 서현역을 통해 강남과 빠르 게 연결되는 교통여건도 편리하 다. 뿐만 아니라 신현 라온프라이 빗은 대중교통 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앞 광역버스를 통해 서 울역과 강남역, 사당역 등 서울 주 요 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 며, 분당 전역으로 이어지는 시내

광주 오폐 일원 4개 동 분양 전용 59·72·84㎡ 총 223가구

분당지역 중·고교 배정 가능

채광·통풍 굿...냉난방 효율

버스 노선도 다수 운행하고 있다.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춘 것도 장점이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우 수한 분당학군으로 배정이 가능하 며, 사업지 인근에 (가칭)신현초 등학교가 개교 예정으로 어린 자 녀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단지 남측으로 자리한 불곡산을 비롯, 녹지공간으로 돌 러싸여 쾌적한 자연환경과 조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전 가구 '중소형 4Bay 평면 & 판상형 남향 배치'

'신현 라온프라이빗'은 단지 설 계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전 가구 4Bay 평면과 판상형 남향 배치로 분당, 광주 등 인근 지역에서 찾아 보기 힘든 상품설계가 눈길을 끈

다. 4Bay 설계를 통해 거실과 침 실이 모두 전면에 배치되어 채광 을 극대화했고 안방과 자녀방이 독립적으로 분리돼 입주자들의 프 라이버시를 보호한다.

이와 함께 '신현 라온프라이빗'은 남향 판상형 구조를 갖춰 맞통 풍이 우수해 환기가 잘되며 냉난 방 효율도 뛰어나다. 주방에 다기 는 대용량 수납이 가능한 주방 펜 트리장이 전 주택형에 설치되며, 전용 72·84㎡ 타입은 현관 워크인 다용도 대용량 수납장이 설치되며 59㎡ 타입도 현관수납장이 양쪽으 로 설치돼 수납공간을 극대화했 다.

또한 로이 복층 유리 적용으로 우수한 에너지 절감과 소음 차단, 결로현상, 자외선 차단이 가능하 며 지하주차장에는 에너지 절감과 긴 수명을 갖춘 고효율 LED조명 이 설치되며, 언제나 안전하게 택 배를 찾을 수 있는 무인 택메시스 템도 적용된다.

라온건설 관계자는 "생활권의 시설이 풍부한 분당생활권에 위치 한 '신현 라온프라이빗'은 우수한 교육여건은 물론 쾌적한 자연환경 까지 인기주거지의 필수조건을 두 루 갖추고 있다"며 "광주 오폐 일 대는 물론 분당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4Bay 평면과 풍부한 수납공 간 등 상품특화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며 견본주택 개 관 전부터 수요자들의 문의가 끊 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 라온프라이빗'의 견본주 택은 분당주택전시관 2층에 마련 되며 입주는 2016년 10월로 예정 돼 있다. 031-714-8887

/광주=장민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신현 라온프라이빗' 조감도.

/사진제공=라온건설



최성 고양시장(가운데)이 지난 10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불공정 통행료 개선'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양시

'서울외곽고속도로 정상화 모색' 토론회

"통행료 개선 실천적 대안을"

고양시장, 기관·전문가에 요청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10일 국회의 원 회관에서 김현미 국회의원(고양 시 일산서구)과 유은혜 국회의원(고 양시 일산동구) 주관으로 열린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불공정 통행료 개선'에 대해 서울외곽순환도로 관련기관 대 표 및 전문가들에게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 시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해 서울-문산간 통행료 문제 등 각종 민자사업에 대한 T/F팀을 결성 하고 이에 경기 북부지역의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참여해 전문가들 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은 방 법이 될 것"이라며 "국회 내에 연구 회를 결성해 전반적인 문제를 효과적 으로 분석하고 실질적 대안을 도출하 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 다"고 제안했다.

이에 시는 앞으로도 경기 북부, 정 치권,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서 울외곽순환도로 통행요금 인하를 전 국적 이슈로 부각시켜 민선 6기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무엇보다 수도권 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2300만 수도권 주민들을 하나

로 잇는 대중맥으로써 서울외곽순환 도로의 본래 건설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강 화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시민단체, 경기북부 지 자체와 함께 과도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강력하게 촉구해왔지만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나 북부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운영자인 서울고속도 로㈜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당위성과 합리성을 확보한 '북부구간 불공정 통행료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자 지 난 2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 한 고양시 피해영향 분석' 연구용역 을 약 9개월간 실시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공조 를 추진하면서 올해 국정감사 때에는 김현미 국회의원(고양시 일산서구) 과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시) 이 고양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북부구간 통행료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재정사업으로 전환', '자 금 재조달을 통한 서울고속도로 경영 구조 개선', '공공기관으로의 전환' 등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했으며 이를 중앙정부 및 경기북부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었다. /고양=이종훈 기자 jhl@incheonilbo.com

과천 "대학생 알바 뽑아요"

시, 장애인·다자녀가정 우선 선발

과천시가 겨울방학부터 대학생 아르바이트 특별선발 대상에 시에 등록된 장애인과 다자녀 가정 대학생들을 우선순위로 선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흐름에 부합하는 취지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특별선발 자격 기준을 기존 4개 항목에서 등록 장애인과 다자녀가정을 추가시켜 총 6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반선발 자격 신청자의 기회 가 대폭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선발 인원이 최대 30%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겨울방학엔 총 30명의 선발인원 중 9명 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등록장애인, 다자녀가정(3 자녀 이상)에서 추천 없이 우선 선발하게 된다.

또 나머지 21명은 본인 또는 부모가 지역에 주민등록 이 돼 있는 대학 재학생 중에서 컴퓨터 추천을 통해 선발 한다. 컴퓨터 추천일시 및 장소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시청 3층 전산교육장이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내년 1월 12일부터 2월13일까지 과천시청, 사업소 등에서 자료 및 도서 정리 등 공무원들의 행정업무를 돕는 일을 한 후 1 일 식비 포함 3만6000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학생들은 재학생명서(접수 20일 이 내 발급)와 고용신청서(접수장소 비치)를 구비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시청 총무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02-3677-2115 /과천=권광수 기자 skskwon@incheonilbo.com

남양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우수

남양주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4년 학교용지부담 금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남양주시는 올해 퇴계원 힐스테이트 아파트 등 19개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71억3000만원을 부과·징수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해 시행사별 관리카드 작성 등 부과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와 개발사업의 승인시 타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학 교용지부담금 부과 누락을 방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양주=정인희 기자 in8488@incheonilbo.com

부동산 사고 팔 때 전문자격사에게

부동산 매물검색은 한국부동산거래소에서

중개업소 방문하실 때 협회 공제마크를 확인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포털사이트 "한국부동산거래소"에 방문하면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kren.or.kr **NAVER** 한국부동산거래소 검색 **d2m** 한국부동산거래소

공제가입, 개설등록 실무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로 문의하세요.

KA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인천 남구 주안로 86, 601호(주안동, 우신주안빌딩) TEL:0321875-6321, FAX:0321875-8731

검색창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를 쳐주세요!

NAVER 창에 **지붕명가**를 치세요

제일건축 지붕개량 전문회사

지붕명가는 포스코 킬리강핀 100% 슬리브공시 전문 기업

25년 현장 시공 노하우를 가진 업계최고의 리모델링 전문회사입니다.

기존 슬라브집 지붕을 개량하면→ 겨울은 따뜻! 여름은 시원! 평생 방수·누수 완전해결됩니다!

▶ 빌딩/아파트/빌라데스리/주택 및 슬라브집/학교/공장/관공서/상가/창고/돈촉사 외

▶ 공장 직영으로 시공하여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초저가 비용으로 시공가능)

전화주시면 내 집처럼 공사하겠습니다.

무료전화 080-457-8282

경인지역 032-473-1004

지붕개량 ★특허★ 출원

※ 공사금액 전액 장기분할 가능



강덕우의 '인천 역사 원류'를 찾아서

<18> '서곶'과 서구

뱃길로 세곡 운송... 군사 요충지

'곶(串)'은 바다나 호수로 길게 뻗은 육지의 끝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반도(半島)처럼 생긴 작은 지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서·남 해안에는 '곶'이란 지명이 수 없이 등장하고 있다. 곶의 안쪽은 '곶의 안'→'고잔(古塼)'으로 음차되고, '곶의 밖'은 '곶 밖'→'곶밭'이 되어 꽃 '화(花)' 발 '전(田)'의 '화전(花田)'이 됐으며, 배가 닿는 곶은 '배 곶'→'배 꽃'으로 음차돼 배 '이(梨)' 꽃 '화(花)'의 '이화(梨花)'라는 명칭이 생겨나게 됐다.

▲서구의 연혁

인천광역시 서구는 옛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의 석곶면(石串面)과 모월곶면(毛月串面)을 주축으로 하고 1995년 인천직할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때 경기도 김포군 김단면을 편입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과거 서구지역에 해당하는 방리(坊里)는 정초 13년(1789)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나타나고 있는데 석곶면에는 봉현리, 가정리, 신현리, 포촌리, 번자리, 가좌리, 울도였고 모월곶면은 공촌리, 연회리, 고잔리, 검암리, 시천리, 백석리, 청라도, 난지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의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 원창동, 가좌동을 포함하는 남쪽이 석곶면이었고 백석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공촌동, 연회동, 심곡동을 포함하는 북쪽이 모월곶면이었다. 이 두면은 승학현(昇鶴峴·싱아고개, 가정동과 심곡동 사이의 고개)을 경계로 구분됐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4월 1일 조선 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대대적인 지방제도 개혁을 단행했는데 이때 부평군 모월곶면과 석곶면을 통합해 '서곶면'으로 하고 이때 새로 신설한 부천군에 소속되게 했다. 서곶은 부평에서 서쪽 해안에 길게 뻗어있으므로 지어진 이름이었다. 1968년 구제(區制)를 실시하게 되면서 중구, 동구, 남구, 북구의 4개 구정을 설치하고 북구에는 서곶출장소를, 남구에는 남동출장소를 두었다. 이어 1988년 1월 1일 북구에서 서구가 분구됐는데, 이 때 이곳의 역사를 감안해서 '서곶'구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교통과 군사의 요충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주목되어졌던 것은 신라 말 고려 초부터로, 9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는 동안 서구 지역 사회의 독특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경서동 녹청자도요지이다. 이 시기는 전국적으로 지방의 호족세력이 발흥하던 때로, 서구와 부평을 아우르는 지역에서도 많은 지방 호족이 출현하고 있었는데 그



세어도전망대

것은 이 지역이 농경을 중심으로 매우 안정되고 풍요한 사회였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더하여 경서동 녹청자도요지는 옛 고잔리('곶의 안쪽') 지역으로 가마의 위치가 해안과 바로 연결돼 있는 점으로 보아 뱃길을 따라 이동이 쉬운 광역의 판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용으로 제작된 녹청자의 대량생산을 통해 수도권 일대에 상권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며, 상업과 해상세력을 갖춘 상당히 유력한 호족들도 출현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인천 앞바다에서 강화수로에 이르는 해상교통은 고려와 조선시대 서울로 수송되는 삼남 지방 세곡(稅穀)의 중요 운송로 중 하나였다. 그러나 강화도의 손돌목은 급물살로 인해 해난사고가 빈번한 지점이었다. 강화를 거치지 않고 인천과 부평을 경유해 서울로 진입하는 것이 바로 김포곶포(堀浦)였다. 고려시대 이미 조세선이 손돌목의 위험을 피하고 안전하게 서울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굴포작업에 착수했으나 실패했고, 조선 중종대(1506~1545)에 김안로(金安老)가 재차 김포곶포 작업에 착수했으나 원통현(원통이고개, 간석동에서 부평으로 넘어가는 경인국도 고개)까지 이르러 아쉽게 중단됐다. 원통이고개라는 지명도 이에서 유래한다.

숙종 36년(1710)에는 금위영제조(禁衛營提調) 민진후(閔鎭厚)의 건의에 의해 이 곳 '석곶'에 방어진을 설치했는데 유사시 강화 덕진진과 영종진 두 곳이 동시에 공격당하면 한양 도성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길목인 이곳에 군대를 주둔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후일 조선의 개항을 앞두고 1875년 영종진이 일본에 의해 함락되자, 개항 교섭의 진행과 함께 인천과 부평 연안의 방비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1879년 화도진, 연회진(모월곶면)과 여러 곳의 포대가 축조됐던 것도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인아라뱃길

한편 굴포작업이 실패한 후 전조창(轉漕倉)을 서곶면 포리에 설치했는데 이곳까지 온 세곡을 서울까지 육로로 수송하기 위해 설치한 창고였다. 이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인천시 서구 원창동(석곶면) 한화 에너지 북쪽 해안에 전조창 터로 보이는 유지가 남아 있고 배가 출입한 것으로 보이는 수로도 확인된다.

▲미래를 향한 서구

1930년대 후반부터 경인공업지대를 병참기 지화한 일제는 적절한 공업항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항 북부에 대한 수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월미도 서부에서 울도 북쪽에 이르는 수로는 대형 선박의 정박이 항시 가능한 수심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면한 북해안에는 광대한 간석지가 발달돼 있음을 알게 됐다. 따라서 이 간석지를 매립해 광대한 공장지대를 형성하고 이로부터 경인공업지대와 연결하면 자유로운 공업항으로서 천연의 양항이 될 수 있음이 판명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일제는 1936년부터 1941년에 이르는 6개년 사업으로 인천 북항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서구의 해안 지역은 평야의 발달은 미미하고 간석지나 갯골이 분포한 긴 해안선을 이루고 있었으나 계속된 간척 사업으로 밋밋한 모양으로 변했다. 염업이나 어업 등 수산업의 중심지였던 북항과 인근 섬 지역은 대규모 매립으로 인해 과거의 지형이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북항 건설 등이 이루어지면 인천지역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게 될 매우 유리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경서, 원창, 연회동 일대와 청라 매립지 등은 서울에 인접해 있는데다가 인천 국제공항의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 개발 대상지 가운데 가장 노련자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로부터 바다로 향하고 조세선의 길목이며 군사적 기능도 겸비하고 있던 서구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인천시 역사자료관 전문위원



이영태의 한시로 읽는 인천 옛 모습

18 이규상의 죽지사(손돌항)

'뱃사공 손돌설화' 현장 묘사 좁은 물목에 사당...안전기원

1765년 이규상이 인천 일대를 유람하고 시를 지었다. 지방의 현실과 지방민의 삶, 여성과 남성의 복식, 상인들의 분주함, 갯벌의 어로작업, 염전의 모습, 용유도 풍경, 무속의 현장, 풍류의 모습, 지방의 역사와 유적, 지방민에 대한 애정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규상이 둘러본 공간은 문학산 주변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문학산 주변인들을 통해 들었던 '손돌설화'를 현장에까지 가서 확인하고 그것을 시로 남겼다.

孫石墳前潮打堤(손석분전조타은)

손돌의 무덤 앞에 물결 바람에 부딪히고

精靈竟作海中仙(정령경작해중선)

정령은 마침내 바다의 신선이 되었네

船人到此齊虔告(선인도차제건고)

뱃사람들 이곳에 이르러 정성껏 고사 지내지만

不盡風波禍福人(부진풍파화복인)

바람과 파도 그치지 않아 화와 복을 주네

작자는 손돌의 무덤이 있는 곳까지 답사를 했다. 뱃사공 손돌이 억울하게 죽자 뱃사람들은 그의 원혼이 격한 풍랑과 거센 바람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생각했다. 물살이 거센 것은 물목이 좁아진 지형적 탓이었지만 뱃사람들은 그것을 초월적 존재와 결부해 이해했기에 고사를 지내며 배를 운항했던 것이다. 하지만 '禍福人(화복인)'에서 '人(인)'이 원인을 가리키는 '因(인)'이라면 사람에게 복이나 화를 주는 대상은 고사가 아니라 '不盡風波(바람과 파도 그치지 않다)'였던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를 몰던 뱃사공이 상대방의 오해로 죽음을 당하였다. 그의 죽음 후, 뱃사공의 판단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다.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했던 뱃사공이 죽자, 주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석해하며 제사를 지냈다는 게 '손돌설화'이다.

손돌이야기는 고려시대 공민왕과 고종으로 설정돼 있지만, <고려사>, <세종실>,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손돌항(孫夏項)이라는 명칭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조선후기에 편찬된 <만기요람>, <대동지지>, <여지도서> 등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손돌의 일화를 특정 왕과 관련시켜 이해할



광성진과 덕진진 사이에 손돌항·무덤 위치.

필요는 없다. 음력 10월20일을 전후해서 부는 바람과 추위를 '손돌뱅이 추위'나 '손사공 얼어죽은 날' 등으로 부르는 것은 전국적으로 분포한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에 한해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엄청시리 춥는 기라, 고래가치고 인자 제일 좁으로 우리가 전해 오는 말아, 인자 시월 초 하릿날이면은 인자, 걸음강 손사공 빠져 죽은 날이다"(<한국구비문학대계>, 1982, 경남 의령 지정면)로 진술하는 데에서 '걸음강'은 한자 표기 '蛟江(기강)'으로 '물살이 험한 곳' 즉 洛東江과 南江의 합수지역을 지칭한다.

물살이 험한 합수지역에 빠져 죽은 자가 손사공인 것도 우연이 아니다. 무엇보다 <용비어천가>에 '손돌'이란 지명에 "簪梁(착량)"으로 한자가 부기돼 있어 '좁은 물목'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어학적으로 보더라도 '손'이 '좁다'의 뜻이다. 예컨대 '술다'는 '너비가 좁다'의 의미로 '술나무'는 '잎이 좁은 나무'이고 '오솔길'이 '외지고 좁은 길'이기에 그렇다. '명량(鳴梁)' 해협을 '울돌목'으로 부른 것도 유사한 경우이다. '좁은 물목'의 물살은 소용돌이치기에 인명 사고가 빈번했을 터, 망자(亡者)의 원혼을 감안해 그것이 물살이 나 추위로 구현된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배 운항의 안전과 온화한 바람과 파도를 바라는 마음이 결집된 게 '손돌설화'였던 것이다.

좁은 영웅의 무덤이 강을 오르고 내리는 여행객들이 볼 수 있는 절벽 저 끝 쪽에 선정하고 분명하게 서 있었다. 요새(要塞)로 사용할 목적인 담이 절벽 위에 있고, 그 안쪽에 무덤이 있고 작은 돌덕 위에 손돌의 사당이 있었는데, 그것은 8평방 피트의 공간에 높이 7피트의 이영으로 덮여진 나뭇가지와 진흙으로 된 보잘 것 없는 구조물이었다. 말하자면, 다소 서툰 인물화가 손돌의 초상으로 의도된 벽면 위에 칠해져 있었는데, 그 밑에는 소원을 비는 봉헌물을 담아두기 위한 긴 선반이 있었다. 이처럼 사당 역할을 하는 구조물은 최근에 세워진 것이다. (<The Korean Repository>, 1895)

개항기, 외국인인 손돌사당을 방문한 경험을 영어로 작성한 문건이다. 배를 타고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손돌의 무덤이 있다는 점과 손돌사당의 규모와 내부의 모습 등을 기록해놓았다. 하지만 '좁은 물목'이 전국에 산재하며 그런 공간에서 인명사고 잇기 마련이고, 그것을 초월적 존재에 기대 피하려는 일련의 마음이 망자를 위한 제사였던 것이다. 어찌 보면 손돌은 사망이기보다는 '좁은 물목'이기에 손돌사당에 모신 대상은 '좁은 물목'이었던 셈이다. 이규상은 그것을 간파하고 사람에게 복이나 화를 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不盡風波(바람과 파도 그치지 않다)'였다고 지적했던 것이다.

/인천개항정연연구소 대표이사

2014 인천연감

인천일보가 매년 발간하는 '인천연감'은

현대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역사서이자 인천경기 백과사전입니다.

2014년에는 상·하권으로 나눠 인천광역시 / 경기도의 변화를 실었습니다.

지역 각급 기관에서 펼치는 행정 및 의회소식 생활정보를 담아

독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도록 했습니다.

인천연감을 펼치면 인천과 경기도의 모든것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연감을 읽는 경기도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우리곶 백과사전입니다

발행 | 인천일보 INCHEONILBO.COM

구입문의 | (032)4520-127



고품질 농산물로 한·중 FTA에 선제적 대응 필요



이침경제

이국희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지난 11월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공식 선언했다. 전체 농산물 1611개 중 초민감 품목(양허제외, TRQ, 부분감축)은 581개(36.1%), 10년 초과 20년 이내 관세 철폐되는 민감품목은 441개(27.4%), 10년이내 관세 철폐되는 일반품목은 589개(36.6%)로 합의했다.

초민감품목은 581개중 548개(94.3%)에 대해 양허제외, 7개(1.2%)는 저율관세할당(TRQ), 26개(4.5%)는 부분감축으로 합의 했으며, 국내 생산이 있는 대부분의 품목은 양허제외 했다. 대중

수입이 많은 국내 민감품목 즉, 김치, 혼합조미료, 기타 소스, 조제 망풍, 들깨, 당면, 조제 팔, 기타 당, 전부용 토란, 타피오카, 쿼리 등은 부분 감축으로 개방을 최소화 했다. 레몬 마가린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은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화해 수입 급증 가능성에 대비 하였고, 신선농산물 중 저율 관세품목, 가축 사료원료 등 수입 의존 품목, 국내 수요가 없는 품목 등은 10년내 관세를 철폐 적용했다.

정부는 이번 한·중FTA협상이 역대 체결한 FTA협상 중 가장 낮은 수준에서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평가했지만, 전체 농축산물 589개 품목 36.6%가 10년내 관세에 철폐될 예정이고, 대두와 참깨, 팥 등의 농산물은 TRQ품목에 포함돼 농가 불안도 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인건비도 싼데다 농산물 재배품종도 한국과 거의 비슷해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제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 대해 우리농업·농촌 발전 성장 동력을 찾아 보자. 중국 현지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를 통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맞춤형 농촌 관광을 상품화해야 한다.

첫째, 중국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품질 가공 농식품 개발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산층 규모는 오는 2015년 약 8억3000만명으로 이 가운데 부

유층은 4억400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고품질 농산물과 관련 식품에 대한 소비 성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중국에 수출된 한국산 분유는 600억원 어치로 4년새 12배로 급증했다. 중국산 식품을 믿지 못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고품질 마케팅으로 파고든 결과다. 고품질 가공 농식품은 얼마든지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국내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함께 2차 산업과 ICT산업이 융합이 가속화 된다면 농산물은 물론 식품분야가 새로운 대중 수출 효과종목이 될 것이다.

둘째, 안전·기능성 친환경농산물 생산전략이다. 중국 상위 고소득층은 가격이나 양보다는 건강과 안전, 웰빙, 힐링을 중요시 하는 소비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유기농면적은 전체 면적의 0.4%로 안전한 먹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작목별로 중국 부유층의 소비 성향을 파악하여 공략해야 한다.

세째, 중국관광객을 위한 맞춤식 농촌관광 상품이 필요하다. 국내를 찾는 요쿠커 수가 올해 9월까지 468만명으로 지난해 방한 수 432만 명을 넘었다. 중국 부유층 사이에서는 갈비 등 고기를 구워먹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성향을 감안해 맞춤식 기능성 특산품, 음식을 개발하여 농촌전문 관광시장마케팅을 추진해야 한다.

오늘의 소사

▶인천항공공소 인천축항사무소로 개편 (1955)
▶중앙시장에 큰불 20동 소실 (1970) ▶산업은행 인천지점 신축준공 (1973) ▶10대 국회의원 선거 유승원 김은하 당선 (1978) ▶계양 용유면주민 국회사 시위 인천시 편입제의 반발 (1988) ▶보문사 분구 발생 <1988> ▶해안도로 개통 (1995) ▶김수환 추기경 문예회관서 북방 선교강연 (1997) ▶잡진도-왕산해수욕장 도로확장 준공 (2001) /자료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인천일보 안에 있습니다!

대표전화 032)4520-114

www.incheonilbo.com

사설

무상급식 선별적이라도 반드시 필요

무상급식 논란이 재점화됐다.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노동당 인천시당 등 정당들로 구성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혁신교육 예산삭감 반대 인천시 민행동'은 10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복원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일부 교육위원들이 무상급식, 혁신교육, 예산을 지역구 챙기기와 실효성 없는 사업과 바꿔치기했다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 된 일부 교육위원들의 행태는 시의원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 논란은 역시 예산문제에서 비롯하지만 무상급식은 복지국가가 실행해야 할 중요한 복지교육의 하나로 봐야 한다. 무상급식의 취지지는 공교육 실현과 경제 양극화의 해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복지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21.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무난한 OECD국가인 셈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상급식 예산이 과도해 노후학 학교시설을 고

칠 수 없고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같은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인 '의식주'의 하나라는 점에 있다. 지금 세상에 밥을 굶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많은 학생들이 밥을 굶는 채 등교한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아침을 굶는데 점심을 해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선입관 한 뒤 책임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재정에 떠맡기는 포퓰리즘도 문제다. 중앙정부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가장 큰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정부는 보조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심각한 환경문제가 우려되는 '4대강'과 같은 예산에는 평평 돈을 쓰면서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 밥 한 그릇 못 먹인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어렵다면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급식비를 낼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돈을 내고, 그렇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지원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아이들 밥을 굶기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어렵게 하는 일이다.

추락하는 메가스포츠이벤트의 위상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 개혁안 '올림픽 어젠다 2020' 중 하나인 '여러 도시에서 올림픽을 치르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IOC는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단일 도시에서 개최하던 올림픽을 여러 도시에서 분산 개최하는 개혁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올림픽 개최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도시가 적극적으로 올림픽 개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곤혹스러움이 묻어난다. 솔직히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을 여러 도시에서 분산 개최하도록 한 것은 최근 올림픽 개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 한 나라에서 대회를 열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IOC가 종전에는 성대하게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시설을 강조하다가 갑자기 비용 절감을 최우선 개혁안으로 들고 나선 것은 역대 올림픽 개최도시들이 적지않은 적자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2022년 동계올림픽은 유치 신청했던 노르웨이 오슬로가 포기하면서 현재 중국 베이징과 카자흐스탄 알마

티 두 도시만 남았다. 이는 추락하고 있는 올림픽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결정으로 평창과 도쿄 올림픽 일부 종목 교류 개최 여부가 수면 위로 부상하며 국내에서는 벌써부터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막을 내린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른 인천이 이 같은 논란이 왜 필요한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인천은 대회 이후 빗터미만 떠안았고 민생과 복지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인천시의 재정압박이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맞닿아 있는 복지 사업 축소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곳곳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였는지 모르겠다"는 허탈한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예고된 실패나 다를 없다. 당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국가원수의 연설을 조직하는 세기의 거짓말까지 동원하고, 대회 효과를 부풀려 '엄격 쌓기 용'으로 유치한 것이 발단이다. 이전까지 메가스포츠이벤트가 더 이상 축복이 아님을 반신반의했다면,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많은 인천시민들이 이를 실감하고 있다.



(1261)

조우성의 미추홀

문화상 시상식

역대 시장 가운데 문화예술에 대해 가장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한 분은 1954년도에 취임한 김정렬 시장이라 꼽는다. 전후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데 앞장서서 창송을 받았는데,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인천 시민의 노래'도 그때 만들었고, 경기도학생백일장도 그때 시작됐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인천문화원 개원, 인천시사편찬위원회 발족 등 굵직굵직한 문화의 씨앗을 뿌렸고, '인천시문화위원회'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인천시 문화상'을 제도화했다. 그해 12월 마침내 제1회 인천시문화상을 시상해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전풍을 세웠다. ▶제1회 수상자는 3개 부문에 한해 시상했다. 수상자는 최기섭(학술), 최성진(음악), 정용복(체육) 세 분이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낯선 분들이었으나, 당대 지역사회에서의 세 분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 후의 수상자들도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를 이끌며 큰 업적을 남겼다. ▶초창기 수상자로는 동양 서예계의 거장 겸여 유희강 선생, 동정 박세림 선생, 국전 대통령상을 수상한 박영선 화백,

관화계의 대가 김상유 선생, 사이클의 김호순, 레슬링의 장창선, 투포환의 백옥자 선생, 국민가곡 그리운 금강산의 작곡가 최영섭 선생 등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냐, 인천시가 '문화상' 시상식을 각종 합동 시상식에 끼워 넣어 격을 크게 떨어뜨렸고, 부산, 대구 등이 별도의 운영위를 조직해 500만원의 상금을 주는 데 반해, 일체의 상금을 마련치 않아 문화예술계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던 것이 저간의 사정이었다. ▶반면에 시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인천문화재단'은 서울 지역에서 시행하던 상을 지역적 합의로 없이 가져온 일이 있는데, 그 부상이 자그만치 1000만 원이나 돼 '시 문화상'과는 현격한 격차를 보여주었다. 일의 경중과 선후가 뒤바뀌어 버린 이상한 결과였다. ▶제32회 인천시문화상 시상식이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비록 상금은 없었지만, 시상식은 과거와는 달리 높은 품격을 보여주었다. 시장과 시의회 인사들이 두루 다 참석해 하객들과 함께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모처럼 보는 흐뭇한 장면이었다. /주필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1개〉		매 각 물 건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 고
사건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아파트]					
2013타경 1077	2	계양구 봉암대로744번길 17, 3동 4층 413호 [착입동, 신진아파트] 40.66㎡	아파트	104,000,000 104,000,000	
2014타경 33491	1	서구 오류동 오류지구76번길1로트 인천경단합스타이트3차 2단지 308동 4층 404호 136.1121㎡ [[주]한백씨연타로부터분양대금299,416,170원미납되었다는2014.11.24.자사실조회원서제출]	아파트	430,000,000 430,000,000	대지권미등기,포합평가
		남구 학곡소61번길 36-3, 4동 1층 111호 [학익동, 서원아파트] 49.98㎡	아파트	87,000,000 87,000,000	
2014타경 55688	1	남구 간석동 187-1 에이동 3층 304호 61.38㎡	아파트	132,000,000 132,000,000	
2014타경 57138	1	남구 새마을로309번길 32, 102동 16층 1601호 [학익동, 엑셀타워] 118.308㎡	아파트	420,000,000 420,000,000	
2014타경 58971	1	서구 고잔동로 398, 106동 20층 2002호 [북동동, 블루아파트] 59.794㎡	아파트	168,000,000 168,000,000	
2014타경 60943	1	남구 주안동 395-6 세종아파트 101동 3층 302호 52.88㎡	아파트	110,000,000 110,000,000	
2014타경 61915	1	부평구 갈월동로 34, 1동 6층 603호 [갈산동, 갈산반디아파트] 84.36㎡	아파트	235,000,000 235,000,000	
2014타경 62581	1	남구 학곡소61번길 36-3, 4동 1층 111호 [학익동, 서원아파트] 49.98㎡	아파트	87,000,000 87,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3타경 1077	1	남구 학곡동 174-12 118.7㎡	대	354,779,980	일괄매각, 제시와 건물포함, 1층권리 상실 [소매점], 2층-4층주택
		남구 학곡소 174-12 1층55.44㎡ 2층70.07㎡ 3층54.51㎡ 4층42.24㎡ 옥탑층8.58㎡ 제시와 합고 면적 49.8㎡ [건축물대장상위반건축물] 무단다수선, 무단중축	단독주택	354,779,980	
2014타경 38373	1	중구 문남동 33-1 569㎡	대	596,926,800	일괄매각, 2014타경 중구 문중로 85 109.8㎡ 제시와 배란다 등 59.98㎡ [제시와건물포함]
		중구 가경동 561-5 1층 102호 36.51㎡	대	596,926,800	경64976, 2014타경 59.98㎡ [제시와건물포함]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4타경 36650	1	남동구 구월동 1162-19 지층 4호 30.90㎡	다세대	49,000,000 49,000,000	
2014타경 43757	1	서구 달하동 1087-9 스페이스빌 가동 5층 501호 37.35㎡	다세대	95,000,000 95,000,000	
2014타경 44835	1	서구 가경동 561-5 1층 102호 36.51㎡	다세대	77,000,000 77,000,000	
2014타경 47567	1	남구 재림이길39번길 30, 3층 301호 37.89㎡	다세대	70,000,000 70,000,000	
2014타경 48127	1	서구 가경동112번길 10-1, 2층 202호 35.01㎡	다세대	60,000,000 60,000,000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4타경 48462	1	계양구 출서로 72-1, 2동 3층 301호 [효성 뉴코아그린맨션] 54.39㎡	다세대	104,000,000	
2014타경 51208	1	계양구 달미1길 28-1, 3층 302호 [동양동, 씨알레3차] 48.7㎡	다세대	146,000,000	
2014타경 54931	1	남구 주안동로25번길 47-11, 4층 401호 [관동동, 광원하이빌] 47.44㎡	다세대	111,000,000	건축물면적:무단
2014타경 55941	1	남동구 간석동 771-26 막산마을 가동 2층 201호 59.72㎡	다세대	110,000,000	중측주목13.43㎡
2014타경 57978	1	남동구 구월방로4번길 19-11, 2동 1층 101호 36.51㎡	다세대	70,000,000	
2014타경 58353	1	서구 신원동 149-25 고려아파트빌 4층 지하층 1호 45.95㎡	다세대	63,000,000	
2014타경 59479	1	남구 주안동 736-16 지하층 1호 49.97㎡	다세대	63,000,000	
2014타경 61571	1	서구 연지동284번길 4, 2층 207호 43.34㎡	다세대	69,000,000	통정영원회원C동
2014타경 67074	1	남구 연지동128번길 34, 비동 1층 104호 33㎡	다세대	50,000,000	
[대지/임야/전답]					
2012타경 24219	1	중구 유익동 산185-10 581㎡	임야	538,458,180	일괄매각, 목적2회
		동소 산185-4 532㎡	임야	538,458,180	연선[4,349,875보의1,081,795], 박인경[4,349,875보의3,268,080]각지분전부
2012타경 75729	1	동소 산185-5 631㎡ [현황부정형도로]	임야		
		동소 산185-11 584㎡ [공유지정관회3026분회432지분전부]	임야		지여연면적303분의615지분전부
2014타경 7935	2	동소 산185-12 436㎡ [공유지정관회3026분회432지분전부]	임야		
		동소 산185-13 418㎡ [공유지정관회3026분회432지분전부]	임야		
2014타경 7935	3	중구 유익동 산3-12 1983㎡ [공유지자연연983보의793지분전부][공공사의자연원상대]	임야	44,170,100	명지, 공유지자연연
		동소 산185-12 436㎡ [공유지자연연983보의793지분전부]	전	162,204,000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2014타경 7935	4	동소 산1411 992㎡	임야	108,014,000	농지취득자격증명
		동소 산1283-3 187㎡	임야	108,014,000	목적, 지적도상 명지
2014타경 7935	5	동소 산1285-2 52㎡	임야		
		동소 산1392 301㎡	임야		
2014타경 7935	6	동소 산1395 506㎡	임야		
		동소 산1396 88㎡	임야		
2014타경 7935	7	동소 산1405 73㎡	임야		
		동소 산1408-2 64㎡	임야		
2014타경 7935	8	동소 산753 598㎡	대	88,504,000	추가지
			대	88,504,000	
2014타경 64817	1	강화군 길성면 참솔리 47-17 694㎡	임야	665,822,382	일괄매각, 목적1-3
		동소 산223-31 928㎡	임야	665,822,382	일괄매각지소장을위 한석축공급및정지차용면적기준상인정대, 석축도상함형가, 목적4-6면적포장면도로로, 분묘기준지정없어부분불합
2014타경 64817	2	동소 산223-32 653㎡	임야		
		동소 산223-20 1485㎡ [공유지자연연1485분회72,7141875[구+구2], 1485분회연면적17,730749 [구+구2면적]각지분전부]	임야		
2014타경 64817	3	동소 산223-23 44㎡ [공유지자연연4분회4,045012[구+구2면적], 4분회지연면적249분회28,9601595[구+구1면적], 249분회18,90232505[구+구7면적]각지분전부]	임야		
		동소 산223-36 249㎡ [공유지자연연249분회28,9601595[구+구1면적], 249분회18,90232505[구+구7면적]각지분전부]	임야		



김포시 무공수훈자 공적비 제막식

김포시는 최근 월곶면 청소년수련원에서 유영록 시장을 비롯해 보훈단체 회원과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공수훈자 공적비 제막식'을 가졌다.

'무공수훈자 공적비'는 1991년 12월에 건립, 국가수호 시설로 관리돼 오다 공적비 노후화로 균열 등이 발생, 무공수훈자회 건의로 인천보훈지청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보수가 이뤄졌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수원지법 사랑나눔회 먹거리 전달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성낙송) 법관 및 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 '사랑나눔회'는 지난 10일 본관 지하 구내식당에서 성낙송 법원장, 오석준 수석부장판사 등 법관과 직원 30여명이 참석해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약 1시간 동안 김장김치 50포기를 담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및 매탄동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 기초수급자 10세대에게 김치와 쌀, 라면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김장김치와 쌀, 라면을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해 사랑을 실천하는 법원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차세대 몽골 한국학 리더 양성 교육

단국대학교(총장 장호성)는 최근 몽골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몽골 교수진을 초청해 '제1회 차세대 몽골 한국학 리더 양성 교육 연구 프로그램'을 가졌다.

이번 연구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다. 연구에는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 한국어과 멘드(N.Mend) 교수를 비롯해 몽골 국립대학교, 울란바타르 대학교, 몽골 인문대학교 등 9개 대학에서 파견한 11명의 교수진과 몽골 국립외국어고등학교 교사 1명이 참여했다.

/용인=허찬희 기자 hurch01@incheonilbo.com



군포소방서 지역안전대책협의회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는 군포시청 등 각 기관과의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마련 등을 위해 지역안전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군포시청을 비롯해, 산본중심상가 상인연합회, 고시원 협회, 노인장기요양시설 연합회 및 소방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소방안전대책 주요 추진사항을 전달하고 기관별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 자체 점검, 소방관계법령 변경사항 안내 등이 진행됐다.

/군포=전남석 기자 nschon@incheonilbo.com

경기 포커스 성남시

시청 내 '하늘 북카페' 누적 방문객 60만 돌파

전망좋은 이색 문화공간 '북새통'

성남시청 내 9층 '하늘 북카페'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하늘 북카페'는 이색 카페로 입소문을 타면서 처음 문을 연 2010년 7월19일부터 올 11월 말일까지 누적 방문객 60만1929명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만 11월 말일 기준 12만 719명, 하루 평균 360명이 이곳을 찾은 셈이다.

이용자는 지역별로 광범위해 성남시민을 비롯해 서울, 용인, 수원, 광주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가족 나들이 장소로 이곳을 찾는다.

'하늘 북카페'는 전망 좋은 곳에서 차를 마시며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시민문화공간이다.

1만5100여권 도서를 구비하고 있고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두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음료자판기가 설치돼 있다.

또 와이파이(Wi-Fi) 서비스 존이 구축돼 인터넷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어른 열람실,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방, 집중 공부방, 담소방 등 각 방을 특화 운영해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



성남시청 내 마련된 '하늘 북카페'에 시민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기관과 개인의 재능 기부로 이뤄지는 역사 특강, 어린이 대상 동화구연, 취업 준비생에게 담소방 무료 대어 등에 대한 시민 호응도 크다.

시는 하늘 북카페에 신간 도서, 인기 도서를 꾸준히 들여놓고 '문화 매신저 통(通)·통(通)'이 시즌 2' 리더십 특강,

가족영화관 등을 기획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청 하늘 북카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 토·일·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연중무휴 운영한다.

/성남=허찬희 기자 hurch01@incheonilbo.com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김장·한돈 나눔행사

어려운 농가·취약층 희망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조재복)는 11일 새대한한농협 화경기도협의회(회장 손종서)와 함께 나눔축산이 공동으로 도드람양돈농협 주자장에서 경기도청 과장, 지역축협조합장, 이천시 여성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및 한돈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담근 김장김치 1320kg와 한돈 650kg를 경기관내 7곳의 푸드뱅크에 전달해 최근 배추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돕고 추운 겨울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조 본부장은 "나눔축산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화 기자 times21@incheonilbo.com

행복양념 듬뿍... 희망 담아 사랑 버무리다

KT 김치 한마당...아동센터·복지시설 김장 전달

KT가 도내 복지 시설을 비롯, 소외 이웃들을 위해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KT는 11일 (사)정다우리와 함께 KT수도권강남구객본부에서 'KT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김치 한마당'이란 주제로 소외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김장 나눔 행사에는 김치 5000kg를 담가 결연을 맺은 경기 광주 밀목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20개 지역아동센터 및 도내 복지시설 20곳 등 총 40곳에 전달했다.

KT직원들은 이번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지난 7년간 겨울은 물론 김치가 떨어지는 봄철 도내 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김장을 담가 전달하는 등 남다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현석 KT 본부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



리 직원들이 정성을 모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사랑 가득 담긴 김치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총체적 '화재재난 대응' 정비 강화

과천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

과천소방서(서장 안선욱)는 11일 한국마사회 주자장에서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을 실시했다.

소방인력 55명과 차량 10대 등이 동원된 이날 훈련은 원인미상의 차량화재를 가상의 시나리오를 부여하고 설정한 뒤 대형화재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광역출동 발령과 함께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사고의 수습과 표준작전절차 수행 등의 훈련을 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각 개인별 임무 숙지 등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마련하고 향후 통제단 가동에 미흡했



던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이순근 현장대응단장은 "재난에 있어 이제 화재 진압 등의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사고에서 수습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며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과천=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



안산상록署 50대 자살기도자 구조

안산상록경찰서(서장 김수희)는 지난 10일 낮 12시쯤 사업실패로 신병을 비판해 가족에게 자살암시 후 집을 나간 A모(52)씨를 적극적으로 구조해 가족의 품에 인도했다.

이날 "사업에 실패한 가정이 서울 한강쪽으로 죽으러 간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자 즉시 월피파출소 순찰 1팀 장 송병 등 팀원 전원은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송 팀장 등은 자살기도자에 대한 인상착의 파악 등 상황을 전파하며 수색을 시작하는 한편 위치추적으로 통해 A씨가 광명에서 안산방향으로 버스로 이동 중인 사실을 확인해 수차례 전화 통화로 "소중한 목숨을 버려서는 안 된다"며 자살 기도자를 설득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경력단절여성 22명 방과후지도 자격증

하남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과후지도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종강했다.

이 과정에 초대졸 이상 학생지도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경험이 있는 경력단절여성 25명이 참가해 22명이 방과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미사 강변도시 내 신설 개교하는 10개 초·중·고교의 방과후 교실과 학습센터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과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남=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동두천 안흥연단 이웃에 쌀 기탁

동두천시 안흥동 소재 안흥연단(대표 윤옥자)는 11일 소요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쌀 10kg 24포를 전달했다.

윤 대표는 소요동새마을부녀회 부회장과 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국수바자회, 김치 담그기 행사 등을 앞장서 300여명의 복지대상자들을 김치 제공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



경북대-스포츠닥터스 산·학협력

경북대학교는 최근 남양주캠퍼스 우당관 4층 다목적실에서 (사)스포츠닥터스(이사장 허준영)와 함께 산·학협력에 따른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으로 양 기관은 의료봉사는 물론, 다양한 부분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국내외 의료봉사활동 협력, 문화, 공연, 예술, 홍보 분야 협력, 재학생 현장실습처 제공, 재학생 취업인턴십 및 우선채용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포천=김성운 기자 swkim@incheonilbo.com

이천 포커스 배다리 도시학교

개발·보존 갈림길... '내 고장 미래' 고민하다

각계 전문가 문화기반 도시재생 토론... "사람중심 공공·개인 동시성장 계기 만들어야"

'배다리 도시학교'는 지난 9일 오후 동구 창영동 대안문화공간 스페이스 빔에서 '현 단계 인천의 도시 재생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지난 2012년 4월 시작된 배다리 도시학교는 인문학에 바탕을 둔 도시 공동체를 만드는 모임이다. 학자, 작가, 학생, 공무원 등이 모여 바람직한 도시 담론, 지역사회와의 연결 속에서 경험을 나누고 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도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장이다.

배다리 도시학교는 첫 해 '당신이 꿈꾸는 도시의 모습은?'이란 주제로 토론의 장을 열었다. 지난해에는 '지금 여기 인천, 갈림길에 선 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인천의 도시 정책·사업을 이야기했다. 3년째를 맞은 올해 배다리 도시학교는 '시시각각(市視各角)'이란 이름으로 현장 탐방과 워크숍으로 도시를 문화적 재생 관점에서 바라본다.



배다리 도시학교 운영위원회는 "행정과 전문가, 주민 사이에 유기적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도 서로 다른 기관·부서에 의해 제각각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내항 1·8부두와 개항장 일대, 중구 송림동 등화마

을과 복성동 새우젓골목,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부평 미군부대 부지와 산곡동 영단주택, 옛 송도유원지와 송도신도시 워터프런트 등 5곳을 걸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인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해경 사무국장은 "결국 무계중심은 사람에 있다. 도시를 만들고, 관계를 잇는 작업도 사람에서 비롯된다"며 "주민은 동네에 주인의식을 갖고, 행정은 비전을 갖고 디자인하면서 공공과 개인이 동시에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기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인천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에 도시 재생 개념을 도입하고, 고민해왔지만 충분한 경험이 갖춰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라며 "도시 재생은 정부 지원 아래 현장에 밀착된 군·구가 앞장서서 전략을 그려야 바람직하다"고 했다.

사랑의열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건호)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일동(대표 고한승)으로부터 성금 2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관계자는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이웃사랑성금을 준비하게 됐다"며 "छ출 어려운 시기에 임직원이 다같이 봉사활동과 성금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건호)는 11일 연중모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착한가게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천 남구 학익동 현대남구판매대리점(대표 박길호) 사업장에서 착한가게 현관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433호로 착한가게에 가입한 현대남구판매대리점은 인천지역 착한가게 중에서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십시일반으로 나눔에 동참하기로 하여 진행된 특별한 경우이다.

/김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인하대총동창회 이웃돕기 쌀 쾌척

인하대총동창회(회장 장석철, ㈜국제웰즈 대표이사)는 최근 불우이웃돕기로 모은 사랑의 쌀 백미 500kg을 인천 남구청(청장 박우섭)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우섭 남구청장과 총동창회 최금영 상근부회장, 허종식 새정연 남구갑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한마음재단 '미혼모 직업교육' 후원

사회복지법인 한국지엠 한마음재단이 동방사회복지회와 함께 미혼모들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한마음재단은 지난 10일, 부평구에 위치한 세움누리의 집(미혼모 자립지원시설)을 방문해 시설에서 양육 중인 아기들을 돌보는 자원봉사 활동과 함께 교육 수료생들을 응원했다.

/인지동 기자 airin@incheonilbo.com

서부署 보안협력위 북이탈주민 송년행사

서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심재구)는 지난 9일 오후 서구 마전동 검단웨딩홀에서 이문기 제6대 보안협력위원장 취임식 및 북한이탈주민 송년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하용철 서부경찰서장, 이학재 국회의원, 강법석 서구청장, 김교홍 전 인천시 정부부시장, 이종민 서구의회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문희국 기자 moonhi@incheonilbo.com

결혼합니다

△양원규(미래복지재단 이사장)·김미경씨의 장남 현주군과 박진규·정진영씨의 차녀 태희양(13일(토) 낮 12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0번지(한류월드로408) 킥박스 제1전시장 3층그랜드볼룸홀. 010-6230-2994

부고

▲오두석(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위원) 모친상=11일(목) 청기와장례식장(동구 송림동 297-1) 대특실(4층), 발인 13일 경기도 광주 공원묘지



신용보증재단 어르신에 사랑의 연탄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인천 동구 송림동 일대에서 저소득 홀몸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11일 밝혔다.

임직원 2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홀몸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지동 기자 airin@incheonilbo.com



경총CEO인재대학 총동문회 송년의 밤

인천경총CEO인재대학 총동문회(총동문회장 서달문)는 총동문회 월우 280여명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유관기관 표창 수여식과 성금 전달식, 초청 공연, 각 기수 장기자랑 대회 등이 진행됐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매립공, 8기 주민지원협 위원 추천요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는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해 서구와 김포시에 협의체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위원 구성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의거 구성된 제8기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는 주민대표로 김단5동, 김포시 양촌읍 등 16명과 해당지자체 구·시의원3명, 환경전문가 2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된다. 032-560-9407

/문희국 기자 moonhi@incheonilbo.com

법무보호복지공단 '희망 나눔 찾집'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유완중)는 지난 10일 서구 심곡동의 한 찾집에서 법무 보호 사업 금을 마련하기 위한 '희망 나눔 찾집'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조상범 법사랑위원 인천지역연합회장, 김중립 운영위원장, 임현영 보호위원연합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지부는 이날 찾집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법무 보호 사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최첨단 설비 구축...조기 암검진 새 지평

IS한림병원 PET-MRI 국내 세번째 도입

IS한림병원이 조기 암 검진을 위한 새 장을 열었다. IS한림병원은 지난 9월 최첨단 조기 암 검진 장비인 PET-MRI를 서울대, 영남대병원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도입한데 이어 최근 암 유전자 변이 검사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암 유전자 검사는 암 유전인자를 미리 확인한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암 유전자 검사를 도입하게 되면서 병원은 사전에 DNA 검사를 통해 유전자 돌연변이 등을 발견, 잠재적인 암 발생 예측이 가능하게 됐고 PET-MRI를 통해 조기 암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잠재적인 암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PET-MRI를 통해 조기부터 관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PET-MRI는 방사선 피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PET-CT에 비해 방사선 피폭이 50% 이상 적어 인체에 무해한 장비다. 한 번에 전신 암 검진이 가능하며 검사 시간이 짧아 암 관리에 용이하다.

/문희국·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문학개발,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후원금

포근한 이불로 따뜻한 겨울나기

문학개발이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겨울나기 지원에 나섰다. 지난 9일 문학개발은 인천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2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저소득 장애인 가정을 지원했다.

복지관 측은 전달받은 후원금을 통해 오는 13일 개최되는 '사랑나눔 바이러스' 행사를 개최, 이불 등을 구입해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경창 문학개발 대표이사는 "많은 가정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인천지역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손길



이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학개발은 지난 2007년부터 인천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소통하며 '사랑나눔 바이러스' 행사를 매년 함께 하고 있다.

/김상우 기자 theexodus@incheonilbo.com

www.sungeul.co.kr

승익가든

생고기전문점 돌, 피로연, 회갑, 단체전문

예약문의 032)887-5555/884-2266

명인꽃계장

1인분 11,000원 연평도 꽃게 전문점

☎(032)751-4433

울림리 해수욕장 가는길 인천광역시 중구 울림동 241번지

모든 자동차에

인천 최대의 중고차 판매단지

간석자동차매매단지

35개 상주 입주 · 자동차 안전 최대 보유

☎(032)872-0446

“문화지원금, 시 예산의 겨우 1%뿐...”

인천문화재단 출범 10주년 김운식 대표 기자간담회

과거 30억 육박 사업비 해마다 감소...내년 8억원 지역문화예술 침체 우려...기업 후원 등 자생노력

초 2010년까지 적립하기로 약속했던 기금 1000억원 역시 2020년으로 그 시기가 미뤄졌고 현재 512억원 적립에 그쳐 재단의 자생적인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예금 이율로 지난 2008년까지 6.18%에 달하던 기금 이율은 최근 2%대로 줄어 이자수익도 23억 여원에서 지난해 16억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5월 인천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비만 지원하던 것을 운영비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했지만 시 재정형편으로 인해 사업비가 지

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실효성은 전무하다.

김 대표는 이 날 간담회에서 “재단이 시 행정부의 일개 팀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듯 하다”며 “재단 운영과 관련한 모든 것이 조례와 규정에 묶여있어 기획력 있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역량을 발휘하거나 할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인천시의 문화예술 예산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그는 “인천시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 예산

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안팎에 불과하다”며 “시 행정부에서 문화를 일종의 행사로 보는 시각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고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전체 예산에서 1%를 줄인다고 무슨 예산 절감 효과가 있겠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재단 측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사업비 확대를 위해 기업 후원과 같은 방안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클라우드펀딩 프로젝트인 ‘아트리’와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체 후원과 같은 메세나(Mecenat)를 추진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더하겠다는 것.

김 대표는 “한정된 사업비로 지역 문화 예술 사업을 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조직 개편을 통해서라도 사업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인천문화재단은 최근 개편된 이사회 보고 등을 통해 내년 2월까지 중·장기 재단 발전 방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글·사진 김상우 기자 theexodus@incheonilbo.com

달콤한 재즈와 한 잔의 여유

인천문화재단 커피콘서트 17일

한 낮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인천종합문화재단의 대표 프로그램인 ‘커피콘서트’가 오는 17일 젊은 실력과 재즈 뮤지션들의 무대로 올해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젊은 실력과 재즈 뮤지션들이 모인 ‘재즈파크빅밴드’. 차세대 색소폰리스트 이인관을 중심으로 젊은 실력과 뮤지션들이 의기투합해 지난 2007년 결성됐다. 2008년 9월 첫 앨범을 발매한 뒤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재즈를 빅밴드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낸 이들은 덕분에 계층과 세대대를 초월한 음악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공연을 선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9년에는 전국문화예총연합회 우수공연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커피콘서트 무대에서는 보컬리스트 김혜미, 마현권과 함께 누구나 들어봤을 재즈 명곡부터 클래식, 영화음악까지 다채로운 음악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In The Mood’, ‘sing sing sing’과 같은 스윙곡에서부터 ‘Jingle Bell’, ‘white christmas’, ‘Jingle Bell Rock’ 등 크리스마스 캐럴도 연주될 예정이다. 연말의 흥겨운 분위기를 달콤하게 예정이다.

특히 이번 커피콘서트 무대는 오후 2시에 열리는 커피콘서트를 관람하지 못해 아쉬워했던 관객들의 요청에 따라 오후 8시 공연이 추가됐다. 단, 저녁공연은 커피가 제공되지 않는다.

/김상우 기자 theexodus@incheonilbo.com



재즈파크빅밴드

‘미술옥션’ 크게 한번 지르세요...기부되니까

부평아트센터 18일 32점 출품

부평아트센터가 지역작가들과 함께 미술품 경매를 통한 자선 나눔 활동을 진행,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18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을 통해 예술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나눔문화 확산이라는 특별한 사회적 가치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은 1부 메이저세일(Major Sale)과 2부 커팅엣지(Cutting Edge)로 진행된다. 그 동안 부평아트센터와 전시를 진행했던 작가들 중 ‘예술을 통한 나눔’이라는 부평옥션의 취지에 동의해준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돼 진행되는 이번 경매에서는 일반 전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경매 추정가로 내어준 총 32점의 소장작품들이 출품될 예정이다.

1부 메이저세일은 18인의 중진 작가들의 삶의 지혜를 통해 탄생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2부 커팅엣지에서는 현대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 신진작가 13인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자선경매를 통해 작품을 낙찰받으면 작품 소장 기회와 더불어 낙찰자의 이름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된다.

오는 18일에 진행되는 경매에 앞서 13일 토요일부터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에서 경매 출품작을 미리 볼 수 있는 프리뷰전시가 개최될 예정이다.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프리뷰전시 기간 내

전시장에서 서면으로 경매에 응찰할 수 있으며 경매 당일 공개응찰 외에 서면응찰도 가능하다.

부평아트센터 관계자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을 통해 지역미술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예술을 통한 새로운 기부문화 확산으로 지역사회에 신선한 감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자선경매와 전시의 자세한 문의는 부평아트센터 누리집 (<http://www.bpart.kr>)을 참고하면 된다.

/김상우 기자 theexodus@incheonilbo.com



드라마 보고 싶어하는 아내를 위해 녹화하세요!

골프중계 즐겨보시는 아버지를 위해 녹화하세요!

교육방송 놓친 내 딸을 위해 녹화하세요!

가입문의 1855-0000

**헬로tv 스마트로
우리가족을 위한
즐거운 녹화!**

국내 유일! 240개 전 채널
녹화되는 헬로tv스마트!

예약녹화, 동시녹화 등 더욱 다양해진 녹화기능!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TV녹화와 티빙시청을!
아이가 보는 화면, 집밖에서 차단하고 메시지 전송까지!
채널555번에서 가족사진을 언제 어디서나 함께 감상!

www.cjhellovision.com

12월 12일(금)					
문의 OBS (032)670-5130 KBS (02)781-1800 MBC (02)780-0015 SBS (02)2113-3190 EBS (02)526-2000					
OBS	KBS1	KBS2	MBC	SBS	EBS
06:00 OBS 뉴스 15 다큐월드 45 OBS뉴스 645 07:00 @ TV 주치의 15 @ @ 독특한 연애 뉴스 08:00 미디어공간 좋은 TV 09:00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식 45 OBS 뉴스 945 10:05 @ @ 그대를 사랑합니다 11:00 TV 주치의 15 @ Music & Movie 45 OBS 뉴스 <경인투데이> 12:05 명불허전 1:05 @ @ 꿈꾸는 U 2:05 꼬마버스 타요 45 OBS 뉴스 245 3:00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45 인성열전 살았나는 세상 4:45 OBS 뉴스 & 이슈 5:45 그대를 사랑합니다 6:45 @ 와이드 블랙박스 55 @ 감성여행 7:45 OBS 뉴스 M 8:25 오늘의 월드 뉴스 55 @ 독특한 연애 뉴스 9:45 오! 이 맛이야 10:40 OBS 경인 뉴스라인 11:05 올니극장 이것이 인생 12:05 @ @ 폰스타 전담포 새나이드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00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각국정상영접 4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 트نت생활채조 11:00 KBS 네트워크특선 55 시청자칼럼 12: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소말 1:00 열린채널 30 ABU TV SONG 페스티벌 3:00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30 @ VJ 특강대 스페셜 4:00 시사진단 55 @ 트نت생활채조 5: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세상은 넓다 6: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7:00 KBS 뉴스 7 30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8:25 @ 당선만이 내사랑 9:00 KBS 뉴스 9 10:00 한-아세안 공동제작다큐 11:00 KBS 뉴스라인	06:00 굿모닝 대한민국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09:00 @ TV소셜 일편단심 만들레 40 @ 여유만만 10:40 @ 리얼 체험 세상을 품다 12:40 @ 영상앨범 산 1:10 @ 생활의 발견 2:00 KBS 뉴스타임 10 @ 다큐멘터리 3일 3:00 @ @ 꼬마신랑 콩도령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0 누가누가 잘하나 5:00 @ 인간극장 스페셜 6:00 KBS 글로벌 24 30 @ 뮤직뱅크 7:50 @ 달굴면 비밀 8: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0 @ 하이 스킨 러브 온 9:50 @ VJ 특강대 11:00 @ 나는 남자다 12:20 @ 유희열의 스케치북 01:40 @ KBS 파노라마	06:00 MBC 뉴스투데이 07:50 @ 폭풍의 여자 08:30 @ 생방송 오늘 아침 55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09:45 @ 기분 좋은 날 11:00 @ MBC 파워매거진 12:00 MBC 정오뉴스 20 @ 세바퀴 스페셜 1: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2:30 동물가족 체험기 3:00 MBC 뉴스 10 @ @ 키즈스쿨 스페셜 55 @ 키즈 CSI 과학수사대 4:25 @ @ 압구정 백야 5:00 MBC 이브닝 뉴스 6:10 @ 생방송 오늘 저녁 7:15 @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8:55 @ 압구정 백야 9:30 @ 리얼스토리 눈 10:00 @ 락동갑나기 과외하기 11:15 @ 나 혼자 산다 12:35 @ 아시아 프리즘 여성육성	06:00 모닝와이드 08:20 청담동 스캔들 09:00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식 40 @ 좋은 아침 10:30 SBS 뉴스 11:00 SBS 생활경제 12:00 SBS 12뉴스 45 @ TV 동물농장 1:55 날씨와 생활 2:00 열린TV 시청자 세상 3:00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4:00 @ SBS 애니컬러리 30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5:00 SBS 뉴스 퍼레이드 30 @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6:20 쿡킹코리아 7:20 @ 사랑만 할래 8:00 SBS 8 뉴스 55 @ 궁금한 이야기 Y 10:00 @ 정글의 법칙 11:25 @ 웃음을 찾는 사람들 12:40 나이트라인 55 IS!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02:10 @ @ 에코발라지 즐거운 가	07:00 @ 부릉! 부릉! 브루미즈 30 @ 캐니멀 40 모야모야 50 @ 말랄라 뽀빠에 55 @ 헬로 코요롱 2 08:10 @ 명탐정 피트 20 @ 으르르차 아이쿠 30 @ 이말! 스페이스 정글 45 Who-워인극장 09:00 @ 뽀글 뽀글! 10 @ 큰 40 생활백과 10:10 @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40 최고의 요리비결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20 @ 하나뿐인 지구 12:00 EBS 정오 뉴스 10 문화유산 코리아 20 생방송 EBS 교육 대토론 1:40 한국사 시간여행 2:00 @ 허풍선이 과학쇼 15 책갈피 요정 도보 30 @ 두다다쿵 3:00 @ 미술품탐대 30 @ 모야 모야 40 캐니멀 50 @ 미앤마이로봇 4:20 @ @ 드레곤 길들이기 45 @ Who-워인극장 5:00 @ 뽀글 뽀글! 10 말랄라 뽀빠에 15 헬로 코요롱 2

12월 13일(토)					
문의 OBS (032)670-5130 KBS (02)781-1800 MBC (02)780-0015 SBS (02)2113-3190 EBS (02)526-2000					
OBS	KBS1	KBS2	MBC	SBS	EBS
06:00 @ @ 사람, 산 50 @ 와이드 블랙박스 07:00 TV 주치의 스페셜 08:00 위대한 자연 55 @ 체인지 라이프 <닥터&스타> 09:55 @ @ 휴먼기획 Life 10:50 @ @ 멜로다큐 <가족> 11:45 OBS 뉴스 55 @ @ 로드다큐 <만남> 12:55 @ @ 경향 24시 1:55 @ OBS 시네마 <댄 인 러브> 3:35 @ 와이드 블랙박스 4:00 @ 글로벌 비전 45 OBS 뉴스 55 감성여행 5:50 @ 사투 6:45 @ @ 즐겨찾기 영화일주 7:45 OBS 뉴스 M 8:10 OBS 스페셜 9:10 @ 전기현의 씨네뮤직 10:10 @ OBS 시네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2:15 @ 나는 전설이다II 01:15 @ @ 리얼 대탐험	06:00 KBS 뉴스광장 07:50 남북의 창 08:20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40 걸어서 세계속으로 10:30 VJ 특강대 스페셜 11:00 사랑의 가족 12:00 KBS 뉴스 10 국악한마당 1:00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2:00 @ @ 헬로카봇 15 @ @ 애니쿠 30 @ 아스타를 향해 차구차구 3:00 꿈나눔 자연속구 4:30 @ 영상앨범 산 5:00 KBS 뉴스 10 동물의 왕국 6:00 사랑의 리퀘스트 7:00 KBS 뉴스 20 다큐 공간 8:10 ABU 공동제작 CARE4 9:00 KBS 뉴스 9 40 역사저널 그날 10:30 세계는 지금 11:20 @ @ 알코 글로벌 다큐 01:20 KBS 뉴스 25 @ 독립영화관 <뜨거운 안녕>	06:00 @ @ 트نت생활채조 05 노장불패 07:05 생생 정보통 스페셜 08:20 특파원 현장보고 09:00 @ @ 비타민 10:00 @ 영화가 좋다 11:10 @ 인간의 조건 스페셜 12:30 @ @ 개그 콘서트 2:15 @ @ 슈퍼맨이 돌아왔다 3:55 @ @ 힐러 6:05 @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7:55 @ 가족끼리 왜 이래 9:15 @ 연애가 좋게 10:25 추적 60분 11:15 @ 인간의 조건 12:25 @ 글로벌 리퀘스트 01:10 @ @ 세상의 모든 다큐	06:00 MBC 뉴스투데이 07:30 MBC 월드리포트 08:00 경제매거진 M 4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9:40 @ @ 아빠! 어디가? 스페셜 11:00 찾아라! 맛있는 TV 12:00 MBC 뉴스 10 @ 무한도전 스페셜 1:30 @ @ 미스터 백 3:40 MBC 뉴스 50 @ 쇼! 음악중심 5:00 @ 우리 결혼했어요 6:25 @ 무한도전 7:55 MBC 뉴스데스크 8:45 @ 장미빛 연인들 10:00 @ 전설의 마녀 11:15 @ 세바퀴 12:35 @ 라디오스타 스페셜 01:35 스포츠 매거진 02:35 @ @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06:00 토요특집 모닝와이드 08:40 @ @ 오 마이 베이비 09:40 @ @ 정글의 법칙 10:55 @ @ 접속! 무비월드 12:00 SBS 뉴스 10 @ @ 러닝맨 1:10 @ @ 미녀의 탄생 2:20 @ @ 자기가-백년손님 3:30 SBS 뉴스 40 @ @ K팝스타 시즌 4 5:00 @ @ 오 마이 베이비 6:25 @ @ 놀라운대체 스타!킹 8:00 SBS 8 뉴스 45 @ @ 모던파머 9:55 @ @ 미녀의 탄생 11:15 @ @ 그것이 알고 싶다 12:15 @ @ 힐링캠프 01:30 @ @ 룸메이트 02:40 로드 투 평창	06:00 희망동경 30 다문화 '사랑' 07:00 @ @ 드레곤 길들이기 30 @ @ 풍선 코끼리 발루보 08:00 @ @ 보롱보롱 뽀로로 30 모여라 댕동맹 09:00 @ @ 로보가 폴리 30 @ @ 곰피와 친구들 10:00 @ @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25 @ 지파이터스 11:15 @ @ 이말! 스페이스 정글 30 만나고 싶습디다 12:00 @ @ 최고의 요리비결 2:30 @ @ 해해 프로젝트 용서 3:20 가족의 발견 50 나눈 0700 4:45 세계의 눈 5:35 장학퀴즈 6:35 @ 한국기행 8:05 @ EBS 스페셜 프로젝트 감독수업. HUG 9:00 @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0:30 장수의 비밀 11:00 @ 세계의 영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12월 14일(일)					
문의 OBS (032)670-5130 KBS (02)781-1800 MBC (02)780-0015 SBS (02)2113-3190 EBS (02)526-2000					
OBS	KBS1	KBS2	MBC	SBS	EBS
06:00 @ @ 여영차 바다야 50 @ 와이드 블랙박스 07:00 OBS 초대석 08:00 위대한 자연 55 @ @ 기찬 처방전 100세 푸드 09:55 @ @ 올니극장 이것이 인생 10:55 오늘은 경인세상 11:45 OBS 뉴스 55 @ @ 즐겨찾기 영화일주 12:55 @ @ 나는 전설이다 II 1:55 @ @ OBS 시네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3:45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 스콕필드 4:45 OBS 뉴스 55 @ 와이드 ASIA 5:50 지구절경기행 6:45 @ @ 미스터리 세계를 가다 7:45 OBS 뉴스 M 8:10 @ @ 연애매거진 9:10 @ @ 명불허전 10:10 @ @ OBS 일요시네마 <댄 인 러브> 11:50 @ @ 전기현의 시네뮤직 12:50 @ @ OBS 스페셜	06:00 KBS 뉴스 10 @ @ 엄마의 탄생 07:05 @ @ 바른말 고소말 08:00 KBS 뉴스 10 일요진단 09:00 @ @ 산너머 남촌에는 시즌2 10:00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 11:00 TV쇼 진품명품 12:00 KBS 뉴스 10 전곡골드벨<김포 장기고> 1:20 스키루프 2:10 2014-2015 V리그 <LG : 대한항공> 4:10 @ @ 세계는 지금 5:00 KBS 뉴스 10 제16회 한중가요제 7:00 KBS 뉴스 10 도전골드벨<김포 장기고> 8:00 강연 100℃ 9:00 KBS 뉴스 9 40 황금의 펜타곤 시즌2 10:40 콘서트 7080 11:40 특선 미래를 청영하라 12:35 @ @ 걸어서 세계속으로 01:25 KBS 뉴스	06:00 @ @ 트نت생활채조 05 생생 정보통 스페셜 07:00 KBS 일요 뉴스타임 40 영상앨범 산 08:10 @ @ 다큐멘터리 3일 09:00 @ @ 1박 2일 10:40 @ @ 출발! 드림팀 시즌2 11:55 @ @ 해피투게더 스페셜 1:05 @ @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스페셜 2:25 @ @ 가족끼리 왜 이래 4:50 @ @ 해피선데이 7:55 @ @ 가족끼리 왜 이래 9:15 @ @ 개그 콘서트 11:10 다큐멘터리 3일 12:10 @ @ 드라마 스페셜 <곤잘린 기쁨> 01:20 @ @ 생생 정보통 스페셜	05:50 @ @ 불후 인생 06:20 시간여행 그랜 그렸지 07:00 MBC 뉴스 10 @ @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08:00 @ @ 해피타임 09:15 @ @ 진짜 사나이 스페셜 10:45 @ @ 신비한TV 서프라이즈 12:00 MBC 뉴스 10 @ @ 출발! 비디오 여행 1:15 @ @ 오만과 편견 3:35 MBC 뉴스 45 @ @ 섹션 TV 연예통신 4:50 @ @ 일밤 <@ @ 어디가/진짜사나이> 7:55 MBC 뉴스데스크 8:45 @ @ 장미빛 연인들 10:00 @ @ 전설의 마녀 11:15 장사특집 카레이스키 01:15 함께사는 세상 나누는 행복 02:20 @ @ MBC 월드리포트	06:00 생활의 달인 스페셜 07:00 SBS 뉴스 10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08:10 @ @ 잘까지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09:25 TV 동물농장 10:45 @ @ 스타주니어쇼 붕어빵 12:00 SBS 뉴스 10 @ @ 미녀의 탄생 1:15 @ @ 인기가요 2:25 SBS 뉴스 35 @ @ 피노키오 4:50 @ @ 일요일이 좋다 <@ @ 스타 4/런닝맨> 8:00 SBS 8 뉴스 45 @ @ 모던파머 9:55 @ @ 미녀의 탄생 11:15 SBS 스페셜 <행복을 위한 작은 사치> 12:15 @ @ 슈퍼주니어M의 게스트하우스 01:15 네트워크특선	06:00 @ @ 가족의 발견 30 @ @ 장수의 비밀 07:00 @ @ 책과 땅 30 @ @ 출동! 슈퍼핑크 08:00 @ @ 꼬마버스 타요 30 @ @ 모여라 댕동맹 09:00 @ @ 두다다쿵 30 @ @ 명탐정 피트 4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0:00 @ @ 으르르차 아이쿠 10 @ @ 리얼체험 탐 10:40 @ @ 다문화 교부 열전 11:30 @ @ 장학퀴즈 12:30 @ @ 극한 직업 1:20 @ @ 명의 2:15 @ @ 일요시네마 <꽃무늬> 4:45 세계의 눈 5:35 @ @ 세계 테마 기행 8:15 @ @ EBS 다큐 프라임 9:10 EBS 스페이스 공감 11:00 @ @ 한국영화특선 <남부군> 10:40 @ @ 문화교류 11:30 @ @ 극한 직업 1:20 @ @ 명의 2:15 @ @ 일요시네마 <꽃무늬> 4:45 세계의 눈 5:35 @ @ 세계 테마 기행 8:15 @ @ EBS 다큐 프라임 9:10 EBS 스페이스 공감 11:00 @ @ 한국영화특선 <남부군>

‘영화공간주안’ 성장통 청소년기 日영화 4편 상영

우리는 그렇게 어른이 된다

‘영화공간 주안’이 13일 열리는 제 28회 인천 시네마테크에서 ‘성장통’을 주제로 일본영화 4편을 상영한다.

‘현대일본영화, 성장통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인천시네마테크에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여성 감독이자 칸 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됐던 가와세 나오미의 다섯 번째 칸 국제영화제 진출작인 ‘소년, 소녀 그리고 바다’를 비롯, 탄탄한 원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키리시마가 동아리활동 그만둔대’, ‘모모세, 여기를 봐’, ‘깨끗하고 연약한’까지 올 한해 주목받았던 현대 일본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영화공간 주안 관계자는 “4편의 일본영화를 통해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 시절의 기억과 아픔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청소년기를 회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 ‘키리시마가 동아리활동 그만둔대’는 절대적 카리스마의 배우 주장 키리시마가 동아리활동을 그만두면서 변화되는 주변 인물들의 일상과 미묘한 감정의 흐름, 그리고 감춰왔던 자신들의 꿈과 사랑을 되찾아 가는 과정을 그린 청춘드라마다. 열일곱 청춘들의 삶을 진지한 고찰을 통해 섬세하고도 묵직한 연출로 담아낸 영화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뿐 아니라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순간을 지나왔던 모든 세대들에게 공감대를 일으키며 강력한 울림을 선사할 작품이다.

영화 ‘소년, 소녀 그리고 바다’는 신비로운 아마미 섬을 배경으로 해변에서 떠오른 시체를 발견한 소년과 소녀가 삶과 죽음의 과정을 겪어내며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다뤘다.

영화는 가와세 나오미 감독이 조지일관 관철시키고 있는 ‘삶과 죽음’, ‘인간과 자연의 공생’, ‘한 세대를 지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삶의 주기’라는 주제 의식을 이어 받았다.

대자연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압도적인 영상미는 물론, 각 캐릭터의 내면의 풍광을 잡아낸 섬세한 연출력으로 스크린을 통해 마음을 치유받는 진귀한 경험을 선사한다.

영화 ‘모모세, 여기를 봐’는 촉망 받는 소설가 노보루가 모교에서 열리는 강연에 참석하기 위해 15년 만에 고향을 방문, 우연히 학창시절 최고의 킥이었던 칸바야시 선배를 만나 당시의 추억을 떠올리며 시작된다.

‘첫사랑’이라는 대중적 코드, 여기에 빛을 발명한 아름다운 영상과 서정적인 멜로디가 더해진 ‘모모세, 여기를 봐’는 각각의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인다.

영화 ‘깨끗하고 연약한’은 295만부의 판매고를 기록한 순정만화의 대가 이쿠에미 료의 원작 ‘깨끗하고 연약한’을 신조 타케히코 감독 특유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원작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감성에 현실성 있는 캐릭터, 여기에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을 더하여 아름다운 이야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작품을 통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첫사랑에 대한 회상은 물론, 가슴 깊은 곳에 머물러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으로 관객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키리시마가 동아리활동 그만둔대’



‘모모세, 여기를 봐’



‘깨끗하고 연약한’

역을 떠올리며 시작된다.

‘첫사랑’이라는 대중적 코드, 여기에 빛을 발명한 아름다운 영상과 서정적인 멜로디가 더해진 ‘모모세, 여기를 봐’는 각각의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인다.

영화 ‘깨끗하고 연약한’은 295만부의 판매고를 기록한 순정만화의 대가 이쿠에미 료의 원작 ‘깨끗하고 연약한’을 신조 타케히코 감독 특유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원작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감성에 현실성 있는 캐릭터, 여기에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을 더하여 아름다운 이야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작품을 통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첫사랑에 대한 회상은 물론, 가슴 깊은 곳에 머물러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으로 관객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김상우 기자 theexodus@incheonilbo.com

오늘의 운세

12월 12일 (음력 10월 21일)

심재호작명소
심재호
(032)545-4794

子

48년 상대가 변화되기를 바라지 마라
60년 상대가 좌정 할 시간을 주어야 길하다
72년 목소리를 낮추어라 듣는 자가 없으니
84년 조금씩 보다는 때를 기다려 준비해야 길하다

丑

49년 너무 고민하지 말고 결정 단계를 기다려라
61년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전진하라
73년 우왕좌왕 상황판단이 안 되니 주의하라
85년 소비계의 지출을 줄여 보아라

寅

50년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62년 이해하는 것 보다 인정하는 것이 좋다
74년 신경이 예민한 날이니 운전을 주의하라
86년 결정을 못한다면 보편적인 조건들을 보라

卯

51년 아내의 협조가 크게 도움이 되는 날이다
63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기로에 서게 된다
75년 가슴속 응어리가 욕심으로 표출되니 주의
87년 하얀 거짓말도 필요할 때가 있다

辰

52년 살면서 어찌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나
64년 배우자와 갈등이 예상되니 주의하라
76년 그래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으니 좋다
88년 자신의 목소리가 커지니 주의하라

巳

41년 조그마한 일에도 눈물이 많아진다
53년 굶지 않는 일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65년 분석한 정보를 토대로 재창출 하라
77년 남에게 지기 싫어하니 구설이 예상된다

午

42년 사방 둘러봐도 의지할 곳이 없으니 슬프다
54년 배가 고파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66년 작은 것도 실정을 해야 이익이 생긴다
78년 유리창도 뒤야야 볼 수 있는 것이다

未

43년 지금은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치는 날이다
55년 서운해도 이해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69년 지출 많은 날이니 불필요한 지출 금물이다
79년 이성적으로 평가는 공정하게 하라

申

44년 서너 가지의 일처리를 같이 하게 된다
56년 가족과 즐거운 야유회를 가져보라
68년 이제는 여러 개의 안경을 가져보아라
80년 의지 견고하지 못해 아직 많게 되니 주의

酉

45년 덕이란 책임과 역할이다
57년 상임이나 계약이 유리하게 진행되니 기쁘다
69년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먼저 인식하라
81년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구설이 예상된다

戌

46년 서운해도 마음에 담지 말고 이해하라
58년 매사 기분이 일정치 않으니 스스로 주의하라
70년 미혼은 새로운 연인이 생기니 기쁘다
82년 좋아한다면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라

亥

47년 기대하지 않은 일이 호자 노릇을 하게 된다
59년 겉으로는 웃음으로 가장하니 주의하라
71년 의존심만 생기면 서로가 피곤하게 된다
83년 미소는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게 된다

K리그 4龍 ‘아시아 정복’ 첫번째 관문 확정

2015 AFC 챔피언스리그 조 추첨

수원, 호주 브리즈번 등과 G조

F조 성남 FC 챔피언과 맞대결

E조 전북 비교적 수월한 대진

서울, PO 통과시 H조에 배치



아시아 클럽축구의 별을 가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이하 ACL) 조 편성이 완료됐다. <표 참조> 11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FC하우스에서 열린 2015 ACL 조추첨식에서 전북은 E조, 성남은 F조, 수원은 G조에 각각 올랐다.

K리그 클래식 1위로 ACL출전권을 따낸 전북은 베트남의 빈 동, 중국의 산둥 루닝, 플레이오프 2경기의 승자와 E조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FA컵 우승으로 ACL에 진출한 성남은 J리그 우승팀 감바 오사카, 태국의 부리람 유나이티드, 플레이오프 3경기 승자와 F조에서 격돌한다.

K리그 클래식 2위 수원은 호주의 브리즈번, 일

2015 AFC 챔피언스리그 조 편성			
서아시아 그룹			
A조	B조	C조	D조
알 나스르	파르타코르	폴란드 후제스탄	알 아흘리
레키야	알 사반	로코모티브	트락토르 사지
페르세폴리스	알 아인	알 힐랄	나사프 카르시
서아시아 PO3	서아시아 PO2	서아시아 PO4	서아시아 PO1
동아시아 그룹			
E조	F조	G조	H조
전북 현대	감바 오사카	브리즈번 로어	광저우 헝다
산둥 루닝	성남FC	일왕배 우승팀	웨스턴 시드니
빈 동	부리람	수원 삼성	비جا이파/우라와
동아시아 PO2	동아시아 PO3	동아시아 PO4	동아시아 PO1
*FC서울 동아시아 PO1 승자시 H조 편성			

본 일왕배 우승팀, 플레이오프 4경기 승자와 함께 G조에 올랐다. 단, 일왕배는 2014 J리그 챔피언 감바 오사카와 몬테디오 아마가타가 맞붙기 때문

에, 아마가타 승리시 G조에 합류하지만 감바 오사카가 승리할 경우 J리그 2위팀인 우라와 레즈가 올라오게 된다.

K리그 클래식에서 3위를 기록한 서울은 플레이오프를 치른 후 승리를 거두면 광저우 에버그란데, 웨스턴 시드니, 일왕배 축구대회 3위팀과 함께 H조에 편성된다.

서울은 2015년 2월17일 하노이T&T(베트남)와 페르시반둥(인도네시아)의 승자 팀과 2015 ACL 조별리그 진출을 놓고 싸운다.

한편, 한국은 2015 ACL출전권이 3.5장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존 4장에서 AFC가 정한 ‘좀 더 많은 국가가 ACL에 출전하기 위해 출전권을 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줄어든 것이다.

/김근영 기자 kky89@incheonilbo.com



축구협회 - SM엔터테인먼트 MOU

A매치 공동 이벤트 진행 등 협약

대한축구협회와 ㈜SM엔터테인먼트가 한국 축구 발전과 축구팬 확보를 위해 힘을 모은다.

대한축구협회와 SM엔터테인먼트는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축구회관에서 상호협력 이해각서(이하 MOU) 체결식(사진)을 가졌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올리 슈틸리케 국가대표 감독,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인기그룹 엑소의 시우민과 카이가 참석했다.

대한축구협회와 SM엔터테인먼트는 축구와 엔터테인먼트의 산업 간 교류를 통해 축구 문화의 활성화 및 다양화를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불고있는 한류의 바람을 축구에 접목해 한국 축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측은 이번 MOU체결로 ▲스포츠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노하우 공유와 활성화 ▲국가대표 A매치와 공연의 결합형태 공동무대 마련 및 응원가 발표 ▲SNS를 통한 상호홍보 및 교류 ▲국내, 국외 공동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결과적으로 한국 축구팬층을 넓혀겠다는 것이다.

이번 MOU체결의 효력은 2년간 유효하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체결식에서 김영민 대표와 엑소의 시우민, 카이에게 대표팀 유니폼을 전달했다. 또 이날 참석한 시우민과 카이를 비롯해 지난 서울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인 최윤겸 감독의 아들로 유명한 샤이니의 민호에게 대한축구협회 명예사원증을 전달했다.

/김근영 기자 kky89@incheonilbo.com·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동산고 야구대제전 준결승 진출 좌절

인천 동산고의 2014 야구대제전 준결승 진출이 무산됐다.

동산고는 11일 마산야구장에서 열린 2014 야구대제전 군산상고와의 8강전에서 2대 5로 패했다.

1회부터 동산고는 군산상고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군산상고는 1회말 박계현(SK)의 좌중간 2루타를 시작으로 3연속 안타를 잡으며 2점을 따내며 동산고에 앞서나갔다.

2회초 동산고는 박병우(전 한화)가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치며 1점을 따라붙으며 추격했다. 하지만 더 이상 점수를 내지 못한 채 2회가 종료됐다.

3회에서 군산상고의 방망이는 다시 한번 2점을 만들어냈다. 5회말에서도 한 점을 추가한 군산상고는 4회초 1점을 추가한 동산고를 무찔렀다.

지난해 32년 만에 부활한 후 이번엔 인천 최고 성적을 거둔 동산고의 도전은 8강으로 끝났다.

군산상고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마산야구장에서 광주일고와 준결승전을 치른다. 대망의 결승전은 오는 13일 같은 곳에서 열린다.

/김근영 기자 kky89@incheonilbo.com

K리그 유스팀 지도자 22명 스페인 연수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K리그 산하 유스팀 지도자 22명이 세계 최고의 유스 시스템을 갖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로 11일 연수를 떠났다. 지도자들은 ‘한국에 메시’를 키우겠다는 포부를 품고 출국길에 올랐다.

지난해 처음으로 진행된 유소년 지도자 해외연수에서 각 지도자들은 웨스트햄, 첼시, 풀럼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개 구단 유소년 훈련을 참관, 토론, 경기 관람 등을 진행했고, 늦은 시간까지 교육열을 불태웠다.

이번 연수 기간 동안 지도자들은 13일 일정으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3팀의 프로 유스팀을 방문해 그들의 장점을 배우게 된다.

이와 함께 현지 최고 권위자들의 초빙해 강의도 받게 된다. 특히 오는 15일과 16일에는 스페인 왕립 축구협회의 이론 및 실기 교육도 받는다.

한편, 해외연수를 통한 유스팀 지도자 역량 강화는 K리그가 지난 2013년 ‘2022년 글로벌 톱10 리그 진입’과 ‘아시아 No.1 리그’를 지향하며 발표한 ‘BEYOND 11(비온드일레븐)’의 내용 중 한국형 유소년 클럽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총 32가지 실행과제 중 하나다.

/김근영 기자 kky89@incheonilbo.com



누가 먼저 잡았을까 11일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4-2015 KCC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스와 창원 LG의 경기에서 오리온스 가르시아(위)와 LG 제퍼슨이 공을 잡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경마 그랑프리 대상경주 유럽 전파

14일 프랑스 등 8개국 위성생중계

EU 회원국 전체 수출효과 기대감

한국경마가 싱가포르에 이어 프랑스 및 유럽 주요 국가로 수출되면서 경마한류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오는 14일 랫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리는 ‘그랑프리(GI) 대상경주’를 프랑스 및 유럽 8개국으로 위성 생중계한다고 11일 밝혔다.

마사회의 프랑스 경주수출은 아시아권을 넘어 경마의 본고장인 유럽으로 직접 수출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수출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프랑스지만 독일, 스페인, 스위스, 벨기에 등 유럽 8개국으로 동시 중계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수출의 경제적 가치는 더욱 크다.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인 EU(European Union)는 회원국 간 경제적 통합을 이루고 있고 경마의 교류가 자유로운 만큼 프랑스와의 수출계약은 앞으로 EU 회원국 전체에 대한 진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기원 해외마케팅팀장은 “수출규모는 2015년 대상경주 30개, 2016년은 일반경주까지 150여개 경주에 이른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싱가포르에 이어 프랑스와 정식계약을 맺게 되면 2020년까지 현지 매출 약 5800억원, 수익 규모로는 2016년까지 약 50억원, 2020년까지 약 170억원의 직접수익을 달성할 예정이다.

/과천·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

소치올림픽 金 박승희 “상복 터졌네”

경기도체육상 스포츠스타상·출입기자단 MVP 선정 겹경사

2014 소치올림픽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따는 활약을 펼친 박승희(22·화성시청·사진)가 경기도체육상 스포츠스타상과 경기도체육회 출입기자단 선정 올해의 MVP를 거머쥐었다.

경기도체육회는 11일 수원 호텔캐슬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45회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을 열어 61명의 선수와 지도자를 표창했다.

스포츠스타상은 빙상의 박승희를 비롯해 정진선(펜싱·화성시청), 손연희(빙림·용인시청), 김

형준(경구·이천시청), 김보미(경구·안성시청), 성남시청(펜싱팀), 함상명(복싱·용인대), 정현(테니스·삼일공고), 김선우(근대5종·경기체고), 이하성(우수·수원시청), 평택시청(하키팀)이 수상했다. 경기부분 최우수상은 성균관대(육상), 장형진(수중·핀수영·구리고), 신다은(빙림·회천중), 이동중(바이애슬론)에게 돌아갔다. 경기부분 우수상은 유재식(역도·평택고), 화성시청(배구), 용인대(유도) 등이 받았다.



지도부분 최우수상은 평택시청 한진수 하키팀감독과 이천시청 이명구 경구감독에게, 우수상은 조윤정 용인시청 빙림감독 등 10명에게 주어졌다.

경기체고 신동원 교장과 안성시체육회 정영일 부회장이 특별공로상을, 경기도체파트크로협회 이충한 실무부회장 등 10명이 공로상을 받았다. 연구상은 김호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에게 돌아갔다.

경기도체육회 기자단이 선정하는 올해의 MVP는 소치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와 3000m 계주에서 정상에 오르며, 500m에서는 두 번 넘어지는 불운에도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빙상의 박승희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인천농구의 대부’ 故 전규삼 기린다

송도중 체육관에서 초등학교 대회 오늘 대진표 추첨 내일부터 시작 순수 아마추어 구성 12개팀 참가

‘농구 할아버지’로 불리는 고 전규삼翁을 기념하는 대회가 열려 화제다.

지난 36년간 대한민국 농구의 한 축을 이루는 유희영, 김동광, 이종희, 강동희, 신기성, 김승현 등등 기라성들을 직접 지도한 전규삼翁을 기리며 농구 꿈나무들을 발탁하기 위한 대

회가 열린다. 12일 오후 2시 대진표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송도중학교 체육관에서 ‘제1회 전규삼배 초등학교 농구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순수 아마추어 농구대회다. 초·등남자부 경기로만 구성된 이번 대회는 비등록 선수 5명으로 구성된 12개 초등학교 농구팀이 참가했다. 경기 시간은 전·후반 10분씩 진행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5분 부여된다. 우승과 준우승 각 1팀과 공동 3위 두 팀 그리고 개인 최우수선수를 선정해 상상을 함으로써 대회는 마무리 된다.

기원서 송도중 교장은 “전규삼翁이 평생을 바친 체육관에서 이런 대회를 열 수 있어 영광이다. 이를 계기로 그의 지도철학이 더 큰 대회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규삼翁의 마지막 제자인 김승현(전 국가대표) 역시 “전규삼翁이 돌아가신지 11년 만에 맺게 된 작은 결실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대회는 인천농구발전의 발화점으로서 명백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인천을 넘어 전국 단위의 농구대회로서 성장해 할아버지의 정신이 확산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근영 기자 kky89@incheonilbo.com



머리보다 빠른 손

11일 (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E조 조별리그 6차전 맨체스터 시티와 AS 로마의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 골키퍼 조 하트(왼쪽)가 공중볼을 편칭하고 있다. 맨체스터 시티는 로마를 2대 0으로 물리치고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원년 주름잡던 스타들 사진 속으로

친필사인 첨부 포스터 제작

초기 6개 구단 간판 한자리

일구회, 26일까지 한정판매

사단법인 일구회(회장 이재환)는 프로야구 33주년을 기념해 원년 레전드 6인의 친필 사인이 담긴 포스터를 한정 제작·판매한다.

참가 선수는 1982년 프로 출범 원년 6개 구단의 간판 스타였던 OB 베이스 박철순, 삼성 라이온즈 이선희, MBC 청룡 김재박, 해태 타이거즈 김봉연, 롯데 자이언츠 김용철, 삼미 슈퍼스타즈 감사용 등이다.

일구회는 6명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A5용지 크기 사진과 단체 사진 2장 등 8장을 한 세트에 구성해 총 600세트를 제작했다.

사진은 윤성우 작가가 재능을 기부해 촬영했고,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가격은 한 세트에 3만원이고 오는 26일까지 판매한다. 구입은 일구회 홈페이지(www.ilgoo.co.kr)를 참조하거나 법안통장 계좌(농협 355-0033-4726-13)로 입금한 다음 사무실로 전화(02-412-9701)하면 된다.

일구회 관계자는 “프로야구는 4년 연속 600만 관중을 돌파하는 등 국민적인 프로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다. 프로야구가 시작할 때는 다들 몇 년 못 갈 것으로 이야기하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지금의 발전과 1000만 관중 시대라는 장밋빛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것은 1982년 한국 프로야구에 참여해 그 밑바탕을 일구어낸 선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한국 프로야구의 33년을 되돌아보는 이 행사에 많은 팬이 함께해, 프로야구의 가치와 추억을 공유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일구회 제작 포스터에 얼굴이 담긴 프로야구 원년 스타들. 왼쪽부터 당시 소속팀 기준 롯데 김용철, 삼미 감사용, 해태 김봉연, MBC 김재박, 삼성 이선희, OB 박철순.

/사진제공=일구회

SK 와이번스 내년 시즌 준비

박진만 연봉 재계약 체결

25% 삭감 1억5000만원



SK 와이번스 박진만이 구단과 2015년도 연봉 재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19경기에 나와 타율 2할5푼, 8안타, 2타점을 기록한 박진만은 올해 연봉 2억원에서 25% 삭감된 1억5000만원에 재계약을 맺었다.

박진만은 “마무리훈련부터 스프링캠프까지 그 어느 때보다 준비가 잘 되었는데 시즌 초반에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쌓아놓은 것들이 너무 아쉬웠다. 생각이 많았는데 구단이 주저하지 않고 재계약을 해줘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는 기회를 가졌다. 배수의 진을 치고 내 모든 것을 내년 시즌에 쏟아 붓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오늘까지 신인선수 오리엔테이션

프로야구 SK 와이번스는 11~12일 경기도 이천의 SK텔레콤 미래경영연구원(FMI)에서 2015년 신인선수 오리엔테이션을 연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는 1차 지명 선수인 포수 이현석을 비롯해 신인 13명이 모두 참가한다.

SK는 이틀간 프로의식을 심고 스포테인먼트를 이해시키는 한편 SK의 그룹 문화와 팀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뒤 12일 부모님과 함께하는 입단식을 치를 예정이다. 입단식은 대표이사의 격려사에 이어 부모님께 보내는 영상 편지, 착모식, 유니폼 증정식 순으로 진행된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우리은행 휴스턴 WKBL 2라운드 MVP



2014-2015 KB국민은행 여자프로농구 2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준전 우리은행 사대 휴스턴(28·186cm)이 선정됐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기자단 투표 결과 총 투표수 96표 가운데 45표를 얻은 휴스턴이 팀 동료 임영희를 3표 차로 따돌리고 2라운드 MVP에 뽑혔다고 11일 밝혔다.

휴스턴은 2라운드 5경기에서 평균 20.8점을 넣고 6.8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 우리은행의 연승 행진을 이끌었다.

2라운드 기량발전상은 구리 KDB생명 김소담(21·185cm)에게 돌아갔다.

2라운드에서 경기당 6.4점, 3.4리바운드를 기록한 김소담은 심판부와 경기 운영 요원, 기술위원, 감독단 투표에서 총 투표수 35표 가운데 24표를 얻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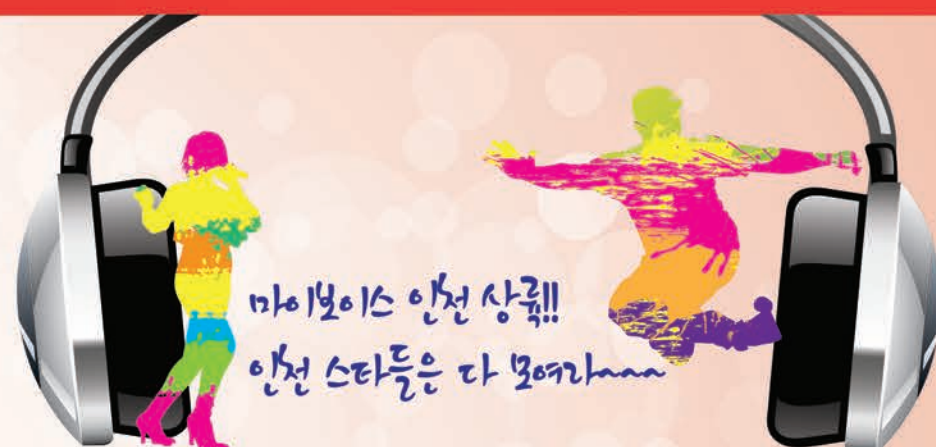
주최: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INIS 인천정보산업진흥원
Incheon Information Service

주관: OBS
경인TV

MY VOICE
Makes my world

2014
★
인천N스타



〈본선무대 개최〉

장소: 송도 지타워(G-TOWER) 3층 공연장
일시: 2014년 12월 13일(토요일) 15:00~17:00
가격: 선착순 무료입장
출연가수: 위대한 탄생 출신 가수 백창강 등

* 주관측 사정에 따라 다른 가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역 스타 발굴 오디션

▶ 인천N방송 참여 혜택

지역신문
오늘의 화제뉴스
보기

전문기자의
현장뉴스 시청

시민이 직접 만든
영상부터 관광, 행정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공

남인천방송 내
인천N방송 프로그램
(열린채널) 시청 가능

대학 방송학과
작품 등 고품질
영상 시청

인천N스타 공지보기 ▶

인천N방송

검색

※ 네이버, 다음 등 대형포털 검색 창에 인천N방송을 검색해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인천N스타 참여하기 ▶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마이보이스] 검색 후 다운 / 서비스 문의: 032-818-0915

학교땅 부실관리 ‘요지경’ ... ‘눈먼땅’ 무단사용 방치

폐교 임차 무허가 거주시설 사용 농작물 무상경작 ... 군부대 주둔도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경기지역 학교 소유땅이 사유지로 무단 사용되는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10월 화성, 평택, 안성, 연천 등 10개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29건의 부실 관리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그 결과 대부분 계약 없이 담장 밖 학교 땅 1천256㎡ 빌려줘 주민이 컨테이너 가

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돌과 나무로 조경해 사용하게 한 A초등학교가 적발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학교장의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수익하거나 점유하면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밖에 B초등학교에서는 학교 부지 2250㎡에서 이 학교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무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다.

도교육청 특감서 도내 29건 적발 학교장·담당직원 주의·경고 처분

C고등학교는 학교 땅 793㎡에 한 주민이 불법으로 주택과 마당을 설치해 30여년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방치해왔고, 땅을 경작용으로 빌려준 D초등학교에서는 부지에 임차인이 주거용 건

물을 지어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군부대가 철책을 두르고 무단 점용하고 있는 E초등학교는 담장 밖 땅 4266㎡에 대해서도 학교측은 파악조차하지 못하다가 이번 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폐교를 임차한 주민이 교육지원청 승인 없이 이동식 컨테이너와 무허가 조립식 건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분임재산관리관을 맡고 있는 학교장이나 담당 직원을 주의 또는 경고 처분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주거용 시설물,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으로 무단 사용되는데도 방치한 사례에 대한 경각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11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도수석교사회 소속 교사들이 ‘교원 정원감축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김철민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기간제교사감축 반대 ‘촛불집회’

경기도중등수석교사회 ... 정원의 배치 이행 촉구도

경기도중등수석교사회는 11일 오후 6시 경기교육청 앞에서 ‘기간제교사감축 반대와 수석교사 정원 외 배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열었다.

박경아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 감축 발표 취소 및 수석교사 정원 외 배치 약속을 지키는 그날까지 231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집회를 진행했다. 또 이를 위해 15일과 18일 경기도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와 연대집회를 진행한데 이어 경기도 전역에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촛불 집회 및 1인시위를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달 각급학교에 내려보낸 ‘2015학년도 중등교원 정원 배치 기준 변경’이란 공문을 통해 예산부족으로 기간제교사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다.

이 공문에는 2012년 이후 교장·교감과 같이 ‘교과교사 정원외’ 인원으로 선발해 운영해오던 초중등수석교사 408명을

정원 내 배치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수석교사들은 이에 대해 공교육의 교육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수석교사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석교사에게 정원 외 배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수석교사의 업무활동을 통한 공교육력 제고의 제도 목적을 내팽개치는 비교육적 처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초·중등교육법 제 19조 2항에 ‘초·중등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를 둔다’ 구분돼 있고, 2012년 법제화 이후 3년 동안 정원 외 배치로 운영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수석교사를 돌연 ‘정원내교과교사’로 배치하려는 것은 수석교사의 존립 자체를 빼앗는 약속 불이행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광주 곤지암 공장지대 노인요양원 특혜설립”

인근 공장주 고발따라
광주경찰서 수사 착수

광주시의 한 공장지대 중심에 공무원들의 특혜로 노인요양원이 설립됐다는 고소장이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서는 광주시 건축 관련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알고도 허가를 했으며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요양원 인근 공장주 4명이 지난달 초 접수한 고소장은 ‘곤지암읍 수양리 공장지대에 창고시설을 노인요양원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점을 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공장주들은 고소장에서 “불법 증축은 시 공무원들과 결탁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노인요양원 건축주는 공사를 진행하다 공사 중지 및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공사를 강행해 건물을 완공했고, 담당 공무원들은 이를 추진형식으로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수원시장·구청장·관계 공무원 야간 합동순찰

‘장기없는 시신’ 공포·불안감 달린다

취약지 방범활동 대폭강화

수원 발견된 토막시신 발견 수색 8일째, 범인은 윤곽조차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수원시장 등 지휘부가 나서 야간합동순찰을 벌였다.

이번 순찰은 2년전 팔달구 지동에서 20대 여성을 토막살해한 ‘오원춘의 악몽’이 재판이라는 소문까지 나돌자 지휘부가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진화에 나섰다. 분석이다.

지난 10일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찬영 팔달구청장, 옹한수 매산동장 등 관계 공무원들은 밤 경찰, 방범순찰대원들과 함께 야간 합동 방범순찰을 했다.

이들은 오후 8시30분 매산지구대를 시작으로 도청오거리 일대와 매산사거리 주변 주택 밀집 지역 등을 순찰하며 현장을 확인했다.

염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취약 시간대 방범활동을 당부하고 주택가와 골목길의 보안등, 가로등, 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사건발생 다음날인 지난 5일 관련부서 긴급회의를 소집, 각종 안전 관련 사업을 재점검하고 야간순찰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범지역, 골목길, 공원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경찰,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순찰을 시행하고 특히 사건이 발생한 팔달산 주변에 대해 야간순찰을 대폭 강화했다.

또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수원시 전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모니터링 활동을 심도 있게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 4일 오후 1시 3분께 팔달산 등산로에서 토막 난 인체 상반신이 비닐봉지에 담긴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아직 범인 검거는 고사하고 피해자의 신원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이성우 기자 jesuilee@incheonilbo.com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등 수원시 공무원들이 지난 10일 밤 경찰, 방범순찰대원 등과 함께 매산로 일대를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검찰총장 성추행 피소 법적 ‘무효’

고소 시점 ‘1년 반’ 지나
警 ‘공소권 없음’ 檢 송치

전직 검찰총장의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의 피소 사건이 성추행이 발생시기가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여부를 다룰 수 없이 실제적 진실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

11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는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오는 12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을 지낸 골프장 임원 A(70)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전 여직원 B(23)씨의 고소장이 접수된 지 딱 한 달 만이다.

B씨는 지난달 11일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며 “2013년 6월22일 밤중에 기숙사 방을 찾았을 때 A씨가 껴안고 강제로 입맞춤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장에서 “A씨가 ‘내 아내보다 예쁘다, 애인해라’는 등의 말을 하고 방을 나가면서 5만원을 쥐여줘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측이 변호인을 통해 B씨가 주장하는 날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실제 성추행이 있었는지가 아닌, ‘날짜’가 고소사건의 유효를 판가름하는 핵심이 됐다.

지난해 6월19일 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이 시행되면서 성추행이나 성폭력 범죄의 신고죄 조항이 폐지됐다.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련 없이 성범죄가 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만 했다. B씨의 고소 시점인 11월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반이 지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장을 지낸 인물이 20대 여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실제적 진실에 대한 접근도 해보지 못한 채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됐다. /의정부=강성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



줄줄 새는 전력

뷰로덱이 지켜보고 있다!

www.iotmall.kr

낭비전력! 대기전력!

이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딱! 딱! 뷰로덱이 잡아 드립니다.



실시간 전력측정 및 모니터링 기능
마이크를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전력량을 모니터링하고 사용량을 알려주는 독특한 기능

대기전력 차단 기능
양극차단 개폐소자를 적용, 전기 플러그를 뽑지 않아도 대기전력을 완벽히 차단하여 전기요금 절감효과 UP

IR리모콘 ON/OFF 제어기능
IR센서를 통해 어떤 리모콘으로도 ON/OFF 제어가 가능한 편리한 기능

자동절전기능
PC의 화면 보호기와 연동하여 주변 장치를 자동으로 ON/OFF, 절전에 따른 불편함 NO

원격제어기능
사무실의 점심시간, 퇴근시간 등에 관리자가 원격으로 일괄/그룹단위 원격 ON/OFF 가능

저탄소 인공지능 제품 뷰로덱!

전기에너지 10~30% 절약!

전기제품 사용하던 그대로 사용하세요!

인간과 자연, 에너지가 함께 +되는 기업

주식회사 피코스넷

Tel : (031) 216-1764~5 Fax : (031) 216-176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7 경기벤처빌딩 수원센터 702호

동구교육 살린다며 자녀는 연수구로

‘교육이 동구의 미래’라고 강조해온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이 중학생 딸을 연수구 학교로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환경 때문에 동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과 어긋나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다. 위장전입 의혹도 배제할 수 없다.

11일 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이흥수 구청장의 막내딸 이모(16)양은 연수구 A여중에 다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흥수 구청장의 자택은 동구 송현동으로 연수구 A여중까지는 차로 30분 거리다.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가량 걸린다. 부모가 살고 있는 집과 멀리 떨어져 혼자서 신도심으로 진학한 것이다.

이흥수 구청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동구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

이흥수 구청장 막내딸, 자택서 1시간 거리 여중 통학 송현동 학군상 배정불가...주소 위장전입 가능성 부상

하겠더라 목소리를 높였다. 장학재단 설립과 교육혁신지구 추진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5일 동구의회 구정 연설에서도 2015년 주요 구정 운영 방향 중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제시하며 “동구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 아이들이 꿈을 이루는 동구, 자녀를 위해 부모들이 먼저 찾고 싶은 동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딸은 “지역을 살리는 일에 밤낮을 가리지 않겠다”(6·4 지방선거 당선 소감)던 동구가 아닌 신도심 지역에 진학시킨 것이다.

이양이 중학교로 진학한 지난 2012년은 박문여중이 동구 송림동에 남아 있던 때였다. 당시 중학교에 진학한 현재 3학년 학생들은 지금도 동구에 있는 박문여고로 통학한다. 현재 남부교육지원청은 동구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여학생을 남부 공학인 화도진중학교와 남구 인화여중·선화여중으로 배정하고 있다.

이양이 다니는 A여중은 인천 전 지역 초등학교 졸업자에게 지원 자격을 주는 음악 중점 학교도 운영한다. 하지만 ‘2012년 음악 중점 학교’ 합격자 명단에 이양의 이름은 없다.

좋은 중학교 학군으로 배정받기 위한

위장전입 가능성도 떠오른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흥수 구청장은 주소지를 ‘동구 수문동로’로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9월30일자로 공개한 관보를 보면, 이 구청장은 동구 송현동 복합상가(주택·상가) 건물, 배우자도 송현동 상가만을 소유하고 있다. 이양만 주소지를 연수구로 옮기고 A여중으로 진학시켰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주민등록법을 보면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소만 바꾸는 위장전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구청장실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재·외근 중이라는 이유로 이흥수 구청장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승민 기자 smilee@incheonilbo.com

‘무허가 도로 점용’ 변상금 건물주 “아닌 밤중 날벼락”

市, 2500여건 적발...5년치 점유분 총 80억원 부과

건물주 “갑작스런 통보·불법 여부판단 문제있다”

인천시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 앞 인도에 차량 출입로를 개설한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80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어서 건물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으로 도로점용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총 2500여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후 도로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불법 행위 적발일로부터 과거 5년간의 도로무단점유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을 세웠다.

시는 항공사진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활용해 불법 도로점용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 10개 군·구를 통해 현장 확인 후 변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다.

현재 변상금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의가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구제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시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변상금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면서 건물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여태껏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5년 치의 변상금을 한 번에 부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도 애매하다는 이유에서다.

건물주 A씨(53·여)는 “열 건물에서 차량 출입로를 개설했는데,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출입로를 이용했다며 4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안내장이 왔다. 불법 여부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항의했다.

이처럼 건물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지자체 역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부분 이 같은 내용을 모르고 있고 민원도 많아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라며 “경기가 어려운 만큼 관련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용료를 받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했다. 이의를 신청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해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 기자 csw0405@incheonilbo.com

인천청 ‘DMB시청 운전자 단속’ 실효성 재검토

한 달 평균 7.3명·실적 73건 불과

인천경찰이 올해 초부터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는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지만, 적발된 운전자는 한 달에 7명뿐인 것으로 나타나 단속의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1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14일부터 운전 중 DMB 시청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3개월 간 시범 단속을 벌인 뒤 5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속 실적은 7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 중 DMB를 보다가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한 달 평균 7.3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인천시에 등록된 승용차가 100만대를 넘어선 것과 비교해 보면, 저조한 실적이다.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단속 시행 전부터 있어 왔다.

대다수 차량의 경우 선풍기(틴팅·tinting)이 짙어 운전자의 모습조차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특히 달리는 차량이라면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찰청은 이런 우려를 의식해 단속 초기 ‘DMB 시청이 의심되는 차량을 쫓아가 촬영 장비를 이용해 증거를 취득한 뒤 단속을 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으로 실효성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저조한 실적으로 머쓱한 상황이 돼 버렸다.

일선 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달리는 차 안에서 DMB를 보는 운전자를 적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그럴 시간에 차라리 안전띠 착용 여부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듯하다”고 털어놨다.

한편 지난 2월 시행된 DMB시청 처벌법은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벌점·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범준 기자 parkb2@incheonilbo.com

공기업 직원 ‘만취 성추행’ 추대

인천의 한 환경공단 소속 직원이 술에 취해 지나가는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50분쯤 ‘술에 취한 남성이 아내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의 신고

가 접수됐다. 검암동 한 노상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곧바로 인천의 한 환경공단 소속 직원 A(29)씨의 신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지나가는 여성 B씨를 강제로 겨안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성원 기자 csw0405@incheonilbo.com



중구 크리스마스 ‘줄속축제’ 지원반대

중구를 사랑하는 시민들 주축로 11일 중구청에서 열린 ‘줄속축제 불법지원하는 중구청장 규탄가자회견’에 참가한 회원들이 크리스마스 축제를 반대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전 인천항만청 과장·해무팀장·청해진해운 대표·임직원 등

세월호 증선·인가 금품수수 관계자 징역형

세월호 증선·인가 등의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과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진현민)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9) 전 인천항만청 선원회사안전과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과장이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간 검사 및 세월호 증선인가 과정에 관여하며 선사로부터 3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는 등 공무원의 신뢰를 추

락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모(60) 전 인천항만청 해무팀장에게 징역 2년을, 장모(57) 전 인천해경 해상안전과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모(43) 인천해경 해상안전과 직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뇌물공여를 지시한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는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에게는 징역 8월에서 2년을 선고했다.

/박범준 기자 parkb2@incheonilbo.com

300soft.co.kr

아직도 대리를 모르세요?



으로 돈 쟁기고
음주운전 버립니다!!

문의전화 : 1899-5337

(주)삼백소프트



어떻게 설치하지?

Play 스토어에서 '삼백소프트'로 검색하고 설치해서, '추천번호'에 01073112951 등록하면 끝~!



대리운전을 부르는 3가지 이유

첫째 부르기가 너무 쉽다.

어플을 실행하고 **GPS 요청**을 누르면 끝! 구구절절 말이 필요 없네~!

둘째 부르면 돈이 된다.

어플을 이용해서 대리운전을 부르면! 이용금액의 10~12%가 바로 캐시 백!

셋째 알려도 돈이 된다.

너무 좋은 어플이라 친구를 초대하니, 친구가 **300**을 이용할 때마다 4%가 또 캐시 백!

L I V E C O N C E R T I N I N C H E O N

2014 희망사향 in 인천

I'm 변진섭

2014.12.14(일)
오후 3시, 오후 7시
서구문화회관

Guest

김완선



김정민

예매  인터파크

문의 1544-1555

주최  서구문화재단

후원  인천일보

